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20대 여성을 위한
제주 문화상품 갈옷 블라우스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高周亨

2011年 2月

20대 여성을 위한
제주 문화상품 갈옷 블라우스 연구

指導交綏 權 淑 姬

高 周 亨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高周亨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 서 희 

委 員 권 속 희 

委 員 이 은 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12月

국문초록

현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복에 있어 디자인 외적 요소로서 그 옷감 소재가 갖는 피부에 대한 웰빙을 추구하게 되었고, 의복의 피부환경에 대한 관심에 따라 천연염색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주도 감물 염색에 의한 갈천으로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을 연구하였다.

갈천에는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균성, 방취성 등 피부환경에 긍정적인 특성이 있다. 그리고 갈천이 갖는 옷감 특성인 뽀뽀하며 부피감을 주고 구김성이 좋은 성질과 갈천의 촌스러운 듯한 갈색과 철매염에 의해 바랜듯한 색상이 빈티지 소재의 특성, 색상과 부합된다. 이러한 갈천의 피부환경에 긍정적인 특성과 빈티지 소재로서의 적합성을 부합하여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의 빈티지 패션을 구현하였다.

제주 문화상품으로 다른 의상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티셔츠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블라우스를 정하였고 5가지 블라우스 디자인을 제시하여 권숙희(2000)식 패턴으로 실험 제작하였으며 예비 실험을 통해 갈천과 철매염한 갈천으로 빈티지 스타일의 갈옷 블라우스를 완성하였다. 갈천과 제작된 5가지 갈옷 블라우스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대 여성의 피부 질환 여부는 31.1%로 피부 질환 여부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상품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갈천의 피부 환경에 긍정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그 각각의 문항인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균성, 방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적은 것으로 나와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갈옷의 선호도에 가장 부정적인 이유로 갈천의 갈색 색상(58.8%)으로 나왔다. 따라서 갈옷의 전통적인 색상인 갈색에서 벗어나 카키색 등 보다 더 다양한 색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위 3의 결과에서처럼 갈색으로 제작된 블라우스 V, II의 선호도, 구매 정도 및 빈티지 부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20대를 위한 갈옷 개발을 위해서는 갈

천의 색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5가지 갈옷 블라우스의 선호도는 III, I 블라우스에서 빈티지 스타일 부합 정도가 높을수록 선호도, 구매 정도가 높게 나타나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 개발을 위해서는 빈티지 스타일에 대한 적용이 적절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갈옷 블라우스의 제주 문화상품으로서의 활용을 위해 20대 체형에 맞게 수정 보완된 5가지 블라우스 패턴을 그레이딩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주 문화상품으로서 갈옷 개발을 위해서는 갈천의 향알러지성, 향아토피성, 향균성, 방취성 등 피부 환경에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20대 여성을 위한 패턴 연구에 따른 맞춤새, 색상, 서로 다른 느낌의 질감의 배합 등을 고려한 빈티지 스타일의 갈옷을 제작한다면 제주 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II. 이론적 배경	4
1. 갈옷의 역사적 고찰	4
2. 블라우스	9
3. 갈옷의 기능성 및 물성에 대한 연구	10
1) 갈옷의 기능성 연구	10
(1) 갈천의 항알러지성에 대한 선행 연구	10
(2) 갈천의 항아토피성에 대한 선행 연구	10
(3) 갈천의 항균성에 대한 선행 연구	10
(4) 갈천의 방취성에 대한 선행 연구	11
2) 갈옷의 물성 연구	11
4. 빈티지와 갈옷	13
1) 빈티지의 개념 및 특징	13
(1) 빈티지의 개념	13
(2) 빈티지 표현 기법	14
① 조합기법	14
② 미완성 기법	14
③ 해체기법	14
④ 장식기법	15
(3) 빈티지 느낌이 나는 소재의 특징	15
(4) 색상	16
2) 갈천의 빈티지 소재로서의 적합성	17

5. 전통 감물 염색과 매염제	18
1) 감물 염색	18
2) 매염제	18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20
1. 시장조사	21
1) 도내 갈옷 판매점 조사	21
2) 갈옷 디자인 현황 조사	23
2. 디자인 개요	24
3. 원단 및 사이즈 선정	26
1) 원단 선정	26
2) 사이즈	26
3) 그레이딩 편차	26
4. 본 연구를 위한 패턴	28
5. 블라우스 제작	29
1) 제작	29
2) 피험자 선정	29
3) 사진 촬영	29
6. 설문지 평가	30
1) 평가 방법	30
2) 평가 내용	30
IV. 연구 결과	33
1. 본 연구의 디자인 도식화	33
2. 패턴 제시	35
3. 착의 사진 제시	43
4. 설문지 평가 결과	47
5. 패턴디자인 별 그레이딩 제시	51

V. 결론 및 제언	62
참고문헌	64
부록	67
Abstract	72
감사의 글	74



표 목차

<표 1> 쇼핑몰 형태의 판매점	22
<표 2> 소매점 형태의 판매점	22
<표 3> 블라우스 디자인 개요	25
<표 4> 원단의 특성	27
<표 5> 20대 여성의 표준체형 신체치수	27
<표 6> 그레이딩을 위한 등길이, 옷길이 편차	27
<표 7> 피험자 신체치수	29
<표 8> 피부 질환 여부 및 갈천에 대한 설문지 내용	31
<표 9> 블라우스에 대한 설문지 내용	32

그림 목차

<그림 1> 갈적삼, 갈중이	6
<그림 2> 갈적삼, 갈굴중이	6
<그림 3> 갈몸빼	6
<그림 4> 1950년~1960년대 갈옷을 입은 제주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	7
<그림 5> 연구 절차	20
<그림 6> 5가지 디자인의 블라우스 도식화	34
<그림 7> 블라우스 I 패턴	36
<그림 8> 블라우스 II 패턴	37
<그림 9> 블라우스 III 패턴	39
<그림 10> 블라우스 IV 패턴	40
<그림 11> 블라우스 V 패턴	41
<그림 12> 블라우스 I	44
<그림 13> 블라우스 II	44
<그림 14> 블라우스 III	45
<그림 15> 블라우스 IV	45
<그림 16> 블라우스 V	46
<그림 17> 갈천의 피부 환경에 긍정적인 점에 대해 아는 정도	48
<그림 18> 5가지 블라우스의 선호도, 구매 정도 및 빈티지 스타일 부합 정도	50
<그림 19> 블라우스 I의 그레이딩 룰	52
<그림 20> 블라우스 II의 그레이딩 룰	53
<그림 21> 블라우스 III의 그레이딩 룰	54
<그림 22> 블라우스 IV의 그레이딩 룰	55
<그림 23> 블라우스 V의 그레이딩 룰	56
<그림 24> 블라우스 I의 그레이딩 전개도	57
<그림 25> 블라우스 II의 그레이딩 전개도	58

<그림 26> 블라우스 III의 그레이딩 전개도	59
<그림 27> 블라우스 IV의 그레이딩 전개도	60
<그림 28> 블라우스 V의 그레이딩 전개도	61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주 전통 갈옷은 1980년대 이후 친환경,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지원과 갈옷에 관심을 갖는 제주인들의 노력으로 더 이상 노동복이 아니라 생활복이면서 외출복이 되었고 문화상품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다. 제주의 갈옷은 장차 현재 고민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문화로 간주될 미래지향적인 옷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직 젊은 20대층을 고려한 상품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도내 갈옷 판매점을 조사하여 디자인을 살펴본 결과, 갈옷이 주로 중년층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으로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갈옷의 색이 촌스럽게 느껴지는 갈색이며 20대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쇼핑물 형태의 판매점의 갈옷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상품을 위해 갈천이 갖는 장점을 활용하고 갈천으로 표현하기 적절한 트렌드가 부여된 블라우스 아이템을 개발하여 관광지에서 손쉽게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이를 대변하는 기본적인 스타일로 5가지 아이템을 제시하였다. 갈천의 특성상 주로 여름에 입는 옷이고 가격, 부피감 등을 고려하여 민소매 및 반소매 디자인 블라우스로 제한하였다.

현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력 향상에 따라 의식주 전반에 걸쳐 웰빙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의복에서도 동일시 되어지며, 이에 따라 본래 의복에서 추구되어지던 디자인 외에 피부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현재 대부분의 의복에 사용되어지는 화학 염색의 피부에 대한 여러 알려지 현상에서 기인되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천연염색이 부각되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전통 천연염색인 감물

염색에 의한 갈천으로서 20대 여성의 빈티지한 블라우스 구현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지난해(2005) 20대와 30대 아토피 환자는 3년 동안 25%, 26%나 늘어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아토피”, 2006). 이러한 상황에서 갈천의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및 항균성, 방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감 과실 추출물이 아토피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채장의, 2009; 이상한, 2010)에서 항아토피성, 항알러지성이 입증되었고, 감즙 염색 면직물의 정균성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연구결과(한영숙, 2005)에서 항균성이 입증되었으며, 소취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한영숙, 2005)에서 방취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갈천이 피부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옷감으로 결론지어진다.

갈천이 갖는 옷감 특성으로는 뽀뽀하며 부피감을 주고 구김성이 좋은 성질을 이용하여 옷의 디자인에서 추구하려는 거친 느낌과 볼륨감, 구겨짐을 활용한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갈천은 촌스러운 듯한 갈색을 가지고 있으며 철매염제에 의해서는 본래의 갈색과는 다른 어둡고 탁한 색상을 낼 수 있으며 원단 소재나 두께에 따라서도 다양한 갈천만의 색상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갈천 염색 과정에서의 균일하지 못한 염색특성으로 인해 표면에 엉성하게 꾸깃꾸깃하고 불규칙적인 구김과 염색 농도에 따른 자연스럽고 다양한 색상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갈천이 가진 항아토피성, 항알러지성, 항균성, 방취성 등의 피부환경에 긍정적인 장점과 갈천이 갖는 드레이프성이 없는 뽀뽀함, 부피감, 유연성이 없는 거친 느낌, 구겨짐 그리고 갈천의 색상이 빈티지 패션이 추구하는 ‘흐릿한’, ‘낡은’, ‘바랜’, ‘오래된’ 이미지(양정희, 박혜원, 2010)와 부합되어 20대 여성들의 빈티지한 캐주얼복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갈천 원단과 철매염한 갈천 원단으로 빈티지 스타일을 표현하여 갈옷 블라우스를 완성하였다. 블라우스 패턴은 조영아(1999)식을 참고로 그레이딩 작업을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 제주도 갈옷의 문화상품이 중년 이상으로 한정된 대상 연령을 20대 여성까지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현재 도내 갈옷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갈옷은 대부분이 중년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옷으로 20대 여성들을 위한 갈옷이 거의 없어 이들을 위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제주 문화상품으로서의 갈옷 판매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에게 갈옷의 장점을 홍보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갈천이 가진 피부 환경적 장점과 빈티지한 소재, 색상적 특성을 활용하여 그들을 위한 빈티지 스타일의 갈옷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관광문화상품으로 구매하기 쉬운 아이템으로 비교적 간편한 블라우스를 선정하였고 5가지 갈옷 블라우스를 제작하였다. 또한 의복에서 중요한 맞춤새를 고려하여 패턴개발 및 보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옷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20대 여성을 위한 제주 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내 업체를 통해 보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갈옷의 계승 및 발전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갈옷의 역사적 고찰

제주도에서 갈옷을 언제부터 입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고려사절요』에 보면 고려 경종 2년(977) 3월에 탐라인으로 처음 고을 등 6인이 과거에 급제한 기록이 있다. 기록을 보면 임금이 그들로 하여금 ‘갈’을 벗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즉령석갈卽令釋褐”이라고 써 있다. 여기서는 ‘葛’자 문제이다. 이 ‘葛’자는 ‘가죽옷’, ‘거친 배옷’, ‘갈색’ 등의 뜻이 있다.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면화씨를 가져온 것이 고려 광종 9년(958)이니 무명옷은 아닌 것 같고, 가죽옷 아니면 갈색옷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듯하다. 김봉옥은 이를 ‘갈옷’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맞는 해석이라면 10세기까지도 제주사람은 갈옷을 입고 개성까지 과거 보러 갔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3월이면 양력으로 4월이다. 아직도 추울 시기이니 가죽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삼베에 감물을 들인 ‘갈옷’인 듯도 하다. 그런데 김정金靜의 『제주풍토록』(중종 16년, 1519)에 보면 “옷을 두드림에 다듬잇돌이 없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모두 ‘갈옷’을 입으니 다듬잇돌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주 사람은 백의민족이 아니요, 한국본토와는 전혀 다른 문화라 해야 한다(현용준, 2009). ‘제주도사논고’에 의하면 1382년(우왕 8년)에 명태조(明太祖)가 전원(前元)의 제후왕인 운남양왕(운남양왕)의 태자와 그의 자손들을 제주에 보냄으로써 그들이 제주에 살기 시작하였다. 감즙염색옷은 그들의 풍속으로 이때 제주에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박순자, 2001). 구전해 오는 이야기로서 제주도 민속박물관장이었던 진성기의 저서(1969)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한 고기잡이 할아버지가 낚시줄이 끊어지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낚시줄에 감물을 들인 결과, 질기고 또한 고기도 잘 잡혔다.]는 전설이 있다(박순자, 2001). 제주도 민구 조사보고에서 <줄을 질기고 또 뻗뻗하게 하여 갈치를 낚는 도중에

줄이 서로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야만 완전한 갈치 술이 된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 놓은 줄은 20여 년 동안 쓸 수 있는데,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풋감 즙이나 돼지나 소의 피를 칠해 건조시켜야 하고 또 이 줄은 자리잡이 어로에서는 ‘벼릿줄’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다(윤성희, 2004). 조선시대 중기 출토 면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350여 년 동안 시신과 함께 관속에 들어 있던 면직물이 풋감 즙으로 염색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윤성희, 2004).

현재 유물로 남아있는 갈옷은 1920년대 이후의 것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제주인들이 노동을 할 때 입었던 갈적삼과 갈중이(남자용), 갈굴중이(여자용)이다.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유물로 남아있는 남자용 갈옷과 여자용 갈옷이다. 일제강점기 말년에 여성들은 ‘몸빼’에 감물을 들여 ‘갈몸빼’로 입었다(그림 3). <그림 4>는 1950~1960년대 제주인들이 갈옷을 입은 사진이다. 갈옷의 명칭을 보면 상의는 남녀 공통 갈적삼이고, 하의는 갈중이(남자), 갈굴중이(여자)이다. 명칭과 남아 있는 유물로 보아 상의는 적삼의 형태가 초기형태였을 것으로 사려된다. 1950~1960년대 사진에서 상의를 살펴보면 여자 상의 갈적삼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반면 남자 상의 갈적삼의 모습은 <그림 1>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앞 여밈에 단추가 달려 있고 상의 앞 양옆에 주머니가 있으며 소매가 서양식으로 달려있다. 그리고 하의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갈굴중이 대신 갈몸빼를 입고 있는데 이는 일제시대 이후 변화로 보여지며, 남자의 경우 첫 번째 사진 ‘어느날의 귀가’를 보면 바지 밑부분이 일자 바지 스타일로 초기 갈중이 스타일과 다르며 다섯 번째 사진 ‘그대로의 모습들’에서는 바지 밑부분이 대님인 것으로 보아 초기 한복 바지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제주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의복이 양복화되는 등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인조섬유가 생산됨으로써 의류 소재가 다양해지고 의복이 풍부해져 전통복식인 갈옷, 해녀복(물옷) 등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박순자, 2001). 제주도 전통복식인 갈옷이 옛 선조의 노동복으로만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는 ‘향토예비군복’이나 ‘체육복’ 등 낡은 면류의 서양복에도 감물을 들여 입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갈옷의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노동복이 아닌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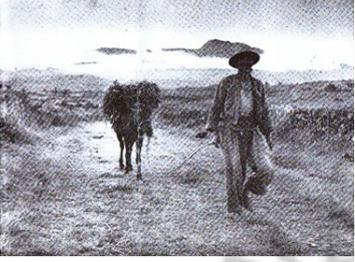
<그림 1> 갈적삼, 갈중이



<그림 2> 갈적삼, 갈굴중이



<그림 3> 갈몸뻬

		
<p>어느날의 귀가/1949년 (출처: 제주 100년)</p>	<p>갈옷 입은 노인/1950년대 (출처: 사진으로 보는 제주 옛 모습)</p>	<p>마차끌기/1951년 1월 (출처: 제주 100년)</p>
		
<p>추곡수매/1960년대 초반 (출처: 제주 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김순택)</p>	<p>그대로의 모습들 (출처: 제주 100년)</p>	<p>마주앉아 멧돌 (출처: 제주 100년)</p>
		
<p>김매는 여인 (출처: 제주 100년)</p>	<p>“자리 삼서!” (출처: 사진으로 보는 제주 옛 모습)</p>	<p>총각 (출처: 제주 100년)</p>

<그림 4> 1950년~1960년대 갈옷을 입은 제주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

복으로서의 착의 시도가 있었다. 갈옷이 지닌 장점을 의복에 활용하고 제주도 문화상품으로써의 가치를 알고 이를 발전시키고 알리고자하는 노력들이 정부(제주 세계섬문화축제 도우미 유니폼(1998), 산자부 주최 “감갈옷 패션이야기” 패션쇼(2000), 월드컵 공식문화상품 지정(2002))에서뿐 아니라 갈옷의 대중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과 홍보에 애쓰는 제주인들(갈옷 브랜드 (주)몽생이 대표 양순자씨, ‘에코 브라운(Eco Brown)’을 창작한 신혜선씨, 정희직물 대표 오정희씨, 봄데강 대표 가수 은희씨, 네나도록 대표 김순복씨, 갈중이 대표 문봉옥씨)의 노력으로 예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더 이상 노동복이 아니라 생활복이면서 외출복이 되었고 관광 문화상품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다.



2. 블라우스

블라우스는 여성용 상의의 하나로 <늘어진 느낌의 불룩한 모양> 또는 <헐렁한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다. 프랑스어로는 블루즈(blues) 또는 슈미제(chemisier)라고 하여 어깨에서 허리선 또는 엉덩이선까지의 여성·아동용 동의류의 총칭이다. 따라서 천으로 만든 블라우스 외에 스웨터와 작업용의 스목도 포함이 된다. 블라우스는 원래 여성용 원피스의 동의에서 변화한 것과 남자용 와이셔츠에서 변화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것에는 블라우스의 단을 스커트 안으로 넣어 입는 터킹 블라우스 또는 언더 블라우스와 스커트 위로 내놓고 착용하는 오버 블라우스가 있다. 뒤의 것은 남자용 셔츠 웨이스트 블라우스에서 발전하여 온 셔츠 블라우스이며, 슈트 아래에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정식 옷차림으로는 이 블라우스 위에 상의를 걸쳐야 바른 착용법이 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테일러드 슈트가 여자복에 도입되면서 스포티한 옷차림의 경우는 상의 대용으로 셔츠만을 입을 수 있게도 되었다. 현재는 재질과 디자인에 따라서 평상용에서 이브닝용으로, 또는 자켓 아래에 착용하는 용도뿐 아니라 길이를 길게 해서 자켓풍의 블라우스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옷감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스포티한 블라우스감으로는 포플린·브로드클로스·마·얇은 모직·화학섬유 등이며, 드레시한 블라우스는 스커트와 조화를 이루어서 외출복 또는 카테일, 이브닝드레스용으로 사용되므로 견직·세틴·조젯·레이스 등이 사용된다. 이 밖에 군복의 자켓도 넓은 의미에서는 블라우스라고 할 수 있다(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 1991).

본 연구에서는 제주 문화상품으로서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 개발의 기초연구로서 다른 의상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티셔츠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로 아이템을 정하였다. 갈천 소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빈티지 스타일을 고려하여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 블라우스를 제작하였다.

3. 갈옷의 기능성 및 물성에 대한 연구

1) 갈옷의 기능성 연구

(1) 항알러지성에 대한 선행 연구

감물 내에 함유된 여러 가지 유용 성분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알러지성 피부염의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이상한, 2010).

(2) 항아토피성에 대한 선행 연구

채장희(2009)의 연구에서는 아토피를 인위적으로 유발한 동물모델에 감 과실 추출물을 도포한 군에서 아토피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를 유발한 마우스의 상피조직에서 면역세포가 다량으로 관찰이 되어 이 부위에 아토피에 관련한 제반 여러 가지의 분자표적이 다량으로 발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감 과실 추출물감 과실 추출물에 의한 아토피에 의한 반응이 부분적으로 억제 또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상한(2010)의 연구에서 항알러지 효과는 DNFB에 의한 아토피 유발 동물모델로서 활성을 확인하였다. 2가지 식물의 추출물에서 아토피 억제효과가 대조구에 비교하여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 항균성에 대한 선행 연구

감즙이 처리된 갈옷이 썩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기록(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을 고려할 때 감즙이 항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인정되며 향미생물제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 갈천에는 감즙 농도, 균 접촉시간, 균 접촉시 배양 온도, 접촉시킨 균의 농도를 달리 하였을 때 감즙 염색 면직물이 나타내는 정균성은 접촉 2시간의 경우의 약 75%를 제외하고 조건에 관계없이 96~100%의 범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살균력은 -139%~100%의 범위에서 감즙농도, 접촉시간, 균농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본 실험에서는 온도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한영숙, 2005).

(4) 방취성에 대한 선행 연구

CP₁₀₀에 균수 4,040인 균액을 접종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피험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소취성 실험 결과에서 대조편에 대해서는 전원이 악취가 심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와 동일한 환경에서 배양된 감즙 염색 면직물에 대해서는 67%에 해당하는 4인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냄새가 난다는 반응은 남녀 총 2인이었다. 그러나 냄새가 다소 난다는 반응을 보인 피험자도 그 냄새가 대조편에서와는 다르다고 대답했다. 항균력이 나타나는 조건에서 소취효과도 우수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한영숙, 2005).

2) 갈옷의 물성 연구

면직물 3종, 마직물, 견직물을 시료로 감즙염색하였고, 감즙염색한 면직물 I을 1, 3, 5, 7, 9회 세탁하였다. 역학적 특성 중 인장특성에서 인장 선형성과 인장 레지리언스가 증가하였고, 전단특성에서 전단강성과 전단 히스테리시스는 대부분의 직물에서 증가하였다. 굽힘특성의 굽힘강성과 굽힘 히스테리시스, 압축특성의 압축 선형성, 압축에너지, 압축레지리언스는 모든 직물에서 증가하였다. 표면특성 중 평균마찰계수에서 모든 직물의 값이 감소하였고, 두께와 중량은 모든 직물에서 원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감각 평가치에서 stiffness와 anti-drape stiffness는 모든 직물에서 증가하였고, 세탁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모든 직물에서 강연도가 증가하였고, 세탁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어 감각 평가치에서 stiffness와 anti-drape stiffness가 증가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직물에서 감즙염색 후 방추도가 감소하여 감각 평가치에서 fullness & softness와 flexibility with soft feeling가 감소한 결과와 같이 나타났다. 모든 직물에서 감즙염색 후 드레이프 계수가 증가하였고, 세탁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어 감각 평가치에서 stiffness와 anti-drape stiffness가 증가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직물에서 감즙염색 후 마모강도가 증가하였고, 세탁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었으며, 이는 두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직물에서 감즙염색 후 흡습성이 증가하였고, 세탁 후에도 조금씩 증가하였다(고은숙, 이혜선, 2003).

물리적 실험결과는 감즙염색 후 뺏뺏해져 푸세의 효과가 있음. 몸에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防暑用으로 유용함. 보온성과 내구력이 증가함 등 갈옷의 장점을 입증해 주었다(박순자, 2001).



4. 빈티지(vintage)와 갈옷

1) 빈티지의 개념 및 특징

(1) 빈티지의 개념

빈티지(vintage)의 의미를 찾아보면 일정한 지역, 수확기의 포도주, 특히 양조 연도가 표시된 숙성된 고급 포도주라는 뜻이 있다(고현진, 2001). 오래된 와인이 맛이 좋듯이 ‘숙성되어 최상의 상태’를 일컫는 의미로 복식에 접목되면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도 빛바래지 않는, 가령 빛바래도 돌연 되살아나는 유행을 말한다. 즉, ‘오래 되어도 가치가 있는 것(old-but goodies)’ 혹은 ‘오래 되어도 새로운 것(new-old-fashion)’이다(임지완, 박민여, 2007). 좀 더 나아가 어떤 해의 생산품 혹은 그 스타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몇 년 형의 자동차(vintage automobile meaning a type of model)처럼 사용되는 개념이다(정윤주, 2007). 아울러 질, 세공 따위에서 같은 종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라는 의미 혹은 작가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가장 좋은, 전형적인(typical), 쉽게 판별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옛날의, 고전적인, 오래되어 가치 있는, 고풍의’ 라는 의미와 나아가 ‘구식의, 시대에 뒤진’이라는 뜻이다(고현진, 2001).

웹사이트의 각종 패션 사전에서 보이는 빈티지 패션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티지 패션은 벼룩시장이나 보세 상점에서 고른 오래된 듯한 낡은 옷들을 크로스 코디네이트해서 입는 스타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옷을 취급하는 상점이 많이 생기면서 단조로운 옷 입는 방식에 싫증을 느끼던 젊은 층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옷입기를 시도하며 유행이 된 스타일이다(고현진, 2001).

지금까지 고찰해본 패션에 있어 빈티지는 과거의, 오래된 골동품성(old), 남이 착용했었던 낡은 중고성(second hand), 그 존재의 시대를 전형적으로 잘 나타내는 진품성(authentic),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희소성(unique),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식성(out-of-mode)의 특성을 갖고 있는 ‘찾아낸 패션’임을 알 수 있다(황경혜, 2001).

한편 최근 패션 트렌드에 있어서, 이러한 빈티지의 영향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실제로 오래되고 낡은 중고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 이미지를 따온 패션 역시 빈티지 패션의 확장된 개념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삼성 패션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빈티지 패션에 대해 과거의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 현대 패션에 이용하는 재활용 패션과, 과거 특정 시대의 스타일을 모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재생 패션으로 나누어 정의내리고 있다(고현진, 2001).

(2) 빈티지 표현 기법

① 조합기법

조합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들을 믹스 앤 매치(Mix & match)시켜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현지현, 2005)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전체나 부분적 라인에 이질적 소재, 색상, 무늬 등을 결합시키는 패치워크, 단추, 스냅, 지퍼, 와펜 등의 부자재를 부착시키는 콜라주, 이질적인 아이템끼리의 레이어드 착장 방식도 여기에 속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기법인 패치워크는 수공예적인 느낌을 주고 개성과 미적인 면을 충족시켜주며, 소재나 구성 형태, 절개의 규칙성, 불규칙성에 따라 창의적 개성미를 전달시켜줄 수 있다.

② 미완성 기법

빈티지 느낌을 살리기 위해 완벽한 봉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미완성적 느낌을 주는데, 주로 끝마무리를 완성하지 않거나 올을 풀어 헤친 상태로 컷팅하여 마무리함으로써 보는 사람의 상상력과 감상을 통해 그 구성의 한계를 확대해 나가는 험 라인 표현법으로 이것은 워싱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효과를 얻는다. 정형화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자 표현으로 사용되며 기존의 그런지(Grunge)스러운 너털너털하고 조약한 느낌이 아닌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마무리 처리하거나 테이핑을 사용하여 보다 정리된 느낌을 준다.

③ 해체기법

의도적으로 찢거나, 칼집을 내는 등의 흠을 내어 손상시키는 표현으로 오래되

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며 새것이 주는 물질의 개념을 파괴하고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파괴해서 개성을 나타낸다. 경직되고 어색한 느낌이 아닌 낡고 바랜 듯한 외관을 위해 탈색 및 염색을 통한 워싱과 주름 등의 후 가공처리를 통해 원래의 재질감과 다른 시각 효과를 준다. 주로 사용되는 워싱 방법으로 약품을 이용한 노멀(normal), 바이오(bio) 워싱, 돌과 모래를 통한 마모를 이용한 스톤 워시(stone wash)가공, 수작업이 첨가된 핸드 브러쉬(hand brush) 효과를 주는 고양이 수염(whisker sand wash), 총알(blast wash) 가공, 핸드 페인팅(hand-painting), 등 다양한 가공법이 있다. 그리고 구김을 주기 위해 크링클(crinkle), 와샤(washer) 가공 등을 통해 인공적이거나 기계적인 느낌이 아닌 불규칙하며 자연스러운 구김 효과를 주어 평범하고 일상적 아이템을 개성있고 신선한 스타일로 제시하였다.

④ 장식기법

빈티지에서의 장식 기법은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개성 표현을 위해 기존의 고정관념의 장식 표현방법을 붕괴시키고 오히려 빈곤미를 부각시켜 장식하는 기법이다(현지현, 2005). 표현 방법으로는 주로 비즈, 핫피스, 아플리케, 핸드-메이드 스티치, 프린트를 사용하고 이것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중 효과(Double-play)로 패턴이 있는 원단 위에 다른 소재를 부분 패치하고 그 위에 다시 장식 효과를 내는 등 복합적이며 독창적인 표현이 늘고 있다. 이 기법은 특별한 공식 없이 자유로운 배치와 개성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기본 아이템이나 일률적인 패턴물의 지루함을 밀어주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3) 빈티지 느낌이 나는 소재의 특징

첫째, 자연 친화적 소재와 천연 소재 사용이 많은데 면, 마, 실크, 모, 가죽 등 천연섬유의 표면에 엉성하게 꾸깃꾸깃하고 불규칙한 구김을 통해 소박하면서 편안해 보이는 느낌을 최대한 살린다. 주로 춘하에 사용되어지는 소재는 중량이 낮고 가벼우며 바삭바삭한 느낌의 촉감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러운 구김, 염색, 워싱 가공한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고 추동에는 표면에 기모나 코팅을 통해 두께감과 중량을 주거나 패딩, 본딩, 다운, 털 등의 충전제 처리를 통해 계절감에 맞는

외관을 최대한 살려 이용했다. 클래식한 모직물, 벨벳, 스웨이드, 가죽, 코듀로이 등 표면 터치감이나 조직 자체의 패턴을 살리거나 이것을 후 가공 처리하여 새로운 느낌의 촉감, 부피감, 색감 등을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낡고 오래된 듯한 가공을 거치거나 신소재의 사용보다 기존의 소재나 쓸모없게 된 소재를 재사용함으로써 재활용 및 다양화를 보여준다(현지현, 2005). 그리고 기존 소재 위에 워싱 가공이나 자수, 라인스톤, 스팅글, 핫피스 등의 장식 처리, 수공예적 느낌의 조직이나 오래된 듯한 원사를 이용한 편직물도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데님 소재의 영역을 확대시켰는데 데님의 변신은 이미 몇 시즌 전부터 기존의 전형적 캐주얼 감성의 스트리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포멀(formal)에서 캐주얼(casual)까지 모든 제품에 활용되었다. 기존의 데님보다 더 감각적이고 세련되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로의 탈바꿈하여 개성 표현의 중요 소재로 부각되면서 빈티지에서 데님은 역사와 시간이 입혀지고 가장 과거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첨단적인 가공법으로 반영되었다. 데님은 주로 워싱을 통해 차별화가 이루어지는데, 주요 방법으로 샌드블라스트(sandblast), 골반 주위 접힌 주름을 표현한 위스커(whisker), 허벅지에 대각선으로 접힌 자국을 만드는 텍사스라인(texas-line), 오염이나 손상을 표현하는 데미지 워싱(damage washing) 등을 통해 본래 소재가 가진 느낌이 아닌 새롭고 다양한 시각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테크닉적인 워싱 외에 수작업으로 염색, 워싱한 데님에 더 부가가치를 두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량 생산되어 고유 번호를 가진 데님이 고부가가치로 판매되고 있다(임지완, 박민여, 2007).

(4) 색상

빈티지 패션의 색상은 땅, 하늘, 나무 등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색감으로 저명도, 저채도의 가공되지 않은 생지 느낌의 색상, 빛이 바래서 퇴색해 버린 듯한 색상, 잉크가 번지듯 얼룩진 색상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이경희, 2003). 초기에는 회색과 검정색, 브라운, 베이지 등의 기본적인 색상을 기조로 하여 카키, 갈색, 남색 등 톤다운 된 색상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한 느낌을 주었고 이것은 탈색과 염색을 통해 한 톤 더 다운되어 과시적 빈곤미를 추구하였지만

빈티지 무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기본 색조 외에 다양한 색상이 함께 사용되어 노랑, 빨강, 녹색, 퍼플, 오렌지 등의 강렬한 원색의 컬러가 위싱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였다(임지완, 박민여, 2007).

2) 갈천의 빈티지 소재로서의 적합성

갈천의 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감즙염색을 하면 stiffness와 anti-drape stiffness가 모든 직물에서 증가하고 감각 평가치에서 fullness & softness와 flexibility with soft feeling가 감소한 결과와 같이 방추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은숙, 이해선, 2003).

빈티지 느낌이 나는 소재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자연 친화적 소재와 천연 소재 사용이 많은데 면, 마, 실크, 모, 가죽 등 천연섬유의 표면에 영성하게 꾸깃꾸깃하고 불규칙한 구김을 통해 소박하면서 편안해 보이는 느낌을 최대한 살린다. 주로 춘하에 사용되어지는 소재는 중량이 낮고 가벼우며 바삭바삭한 느낌의 촉감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러운 구김, 염색, 위싱 가공한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낡고 오래된 듯한 가공을 거치거나 신소재의 사용보다 기존의 소재나 쓸모없게 된 소재를 재사용함으로써 재활용 및 다양화를 보여준다(현지현, 2005).

빈티지 패션의 색상은 땅, 하늘, 나무 등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색감으로 저명도, 저채도의 가공되지 않은 생지 느낌의 색상, 빛이 바래서 퇴색해 버린 듯한 색상, 잉크가 번지듯 얼룩진 색상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이경희, 2003). 초기에는 회색과 검정색, 브라운, 베이지 등의 기본적인 색상을 기조로 하여 카키, 갈색, 남색 등 톤다운 된 색상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한 느낌을 주었고 이것은 탈색과 염색을 통해 한 톤 더 다운되어 과시적 빈곤미를 추구하였다(임지완, 박민여, 2007).

이상과 같이 갈천이 가진 뽀뽀하고 구김이 좋은 성질과 갈천의 색상인 갈색, 철매염을 하였을 때 어둡고 탁한 색상과 염색과정에서의 얼룩이진 색상, 그리고 갈웃은 재염색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빈티지 패션에서 요구하는 특징, 소재, 색상과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5. 전통 감물 염색과 매염제

1) 감물 염색

갈옷의 소재가 되는 갈천을 만들기 위한 감물 염색 방법은 1) 음력 7~8월 정도에 제주 토종 풋감 따기 2) 풋감 즙 만들기 3) 풋감 즙으로 직물 물들이기 4) 햇빛에 말리기 5) 물에 적시기 6) 햇빛에 말리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5)~6) 번을 반복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갈색이 점차적으로 진해지므로 5)~6) 번을 4~6일 정도 반복하다가 원하는 색조가 나타나면 이를 중단한다. 이러한 반복횟수가 지나치며 어두운 색조의 칙칙한 흑 갈색이 얻어지므로 8일(일조량이 좋은 경우)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일반적 견해이다.

이렇게 발색되는 갈색 종류 또는 색조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1) 풋감의 요인으로는 풋감의 종류(예: 제주 토종 풋감 또는 단감), 탄닌 함유량, 저장 기간 및 방식(예: 냉장 또는 냉동 저장) 2) 풋감 즙 요인으로는 풋감 즙의 농도(물과의 혼합 정도), 저장 방식 및 저장 기간, 다른 원액(예: 양파껍질 즙)과의 혼합 정도 및 혼합액의 종류(예: 양파 껍질 또는 치자 꽃) 3) 기후 요인으로는 햇볕 조사량 및 강도, 습도 4) 발색 과정의 요인으로는 발색 횟수(앞의 4~5번의 횟수) 5) 재료 요인으로는 직물 종류(예: 면, 실크 등) 6) 매염제 요인으로는 매염제 종류(동, 철, 주석 등)와 농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갈옷 및 감물 염색 제품은 그 색상이 갈색을 띄지만 이러한 여러 요인의 변화에 따라 붉은 갈색, 흑 갈색, 황토색, 베이지 색 등의 여러 종류의 갈색과 다양한 농담의 색조가 얻어질 수 있다(홍희숙, 2003).

2) 매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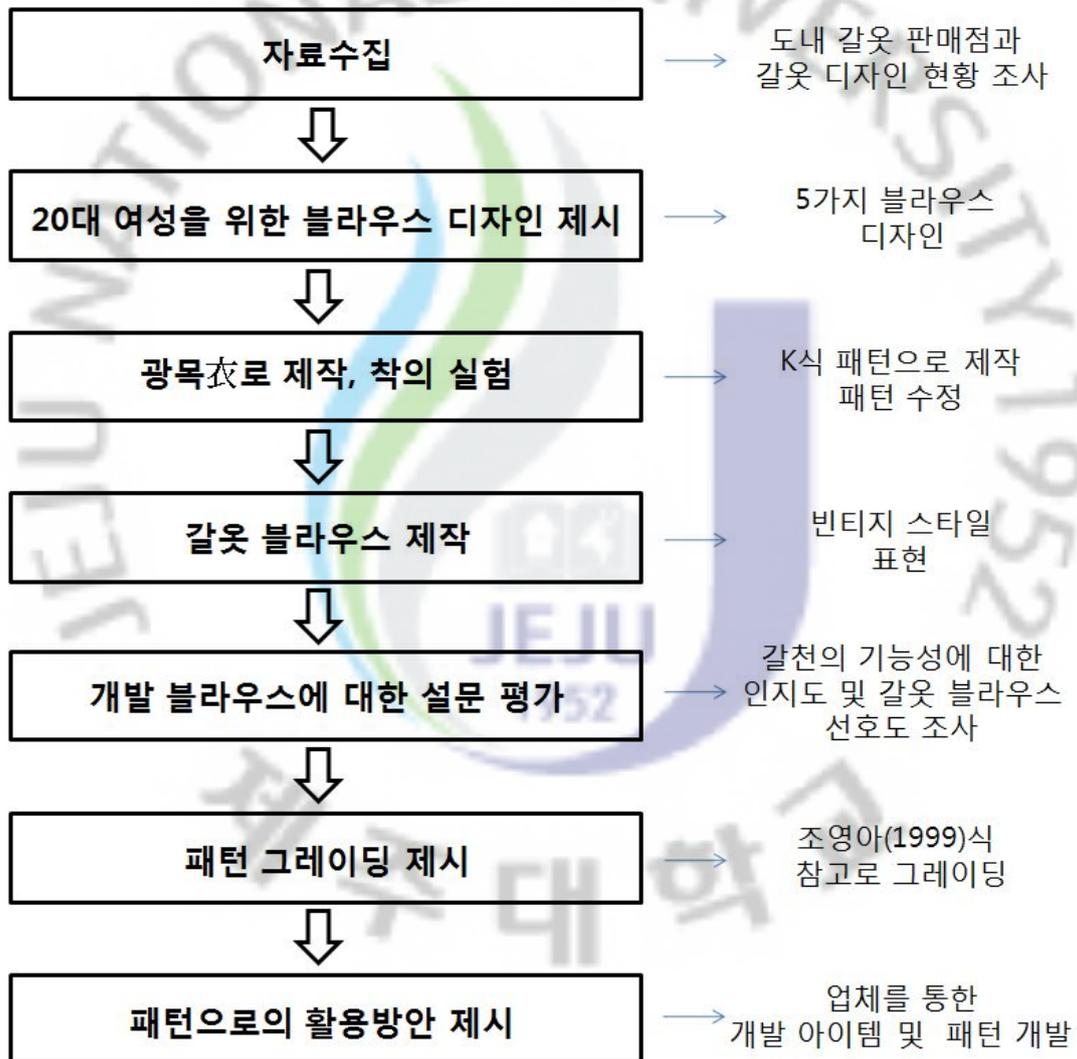
매염제는 섬유와 친화력이 없는 염료와 섬유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양진숙, 김기연, 2006) 크게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매염제와 한 가지 특정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놓은 합성 매염제로 나뉜다(심화진, 이해영, 2006). 천연매염제의 재료로는 모두 자연에서 얻을 수 있으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조개껍데기나 돌을 구워 만든 석회, 콩대나 나무, 짚, 동백나무, 명아주, 노린

재나무, 메밀, 봉호(쑥), 뽕나무 등의 재료부터 얻어지는 잿물, 녹슨 철을 이용한 철장액, 그 밖에 풀, 얼음, 백반, 울피, 콩즙, 동물의 변과 오줌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천연매염제는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며, 석회나 재 등은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사람에게 이로운 효과를 준다. 합성 매염제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으로 인체와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량의 매염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성분은 구리(Cu), 카드뮴(Cd), 비소(As), 납(Pb), 크롬(Cr), 황산제일철(FeSO_4), 황산제일주석($\text{SnCl}_2 \cdot 2\text{H}_2\text{O}$), 가성소다(NaOH) 등인데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납, 크롬은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의 오염 물질이며, 합성매염제를 사용한 염료에는 각 원소의 함량에 따라 색상의 명도와 채도에 영향을 주는데 알루미늄 원소가 많을 때에는 색상이 밝아지며, 구리·철·크롬 원소가 많을 때에는 어두운 색을 띤다. 매염제는 되도록 적당량을 사용하여야만 섬유에 손상을 막을 수 있으며, 매염 시간이 길면 오히려 색상이 연해질 수 있다(심화진, 이해영, 200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철매염한 갈천의 경우 매염제는 철장액이다. 철장액의 주 성분은 초산철로 예로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철매염제이다. 산림경제에 보면 철장액은 주로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이는데 사용했다 한다. 제조 방법은 고철을 맥류의 즙, 또는 흑사당, 초산 등에 넣어 숙성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초산에 의한 방법을 살펴보면 고철이나 철편을 용기에 넣고 초산을 탄물을 넣어 1~2주일 정치해 두었다가 숙성되면 철편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급하게 사용할 때는 철편을 가열시켜 용기에 넣고 초산을 가한 물을 넣는다. 그리고 용기에 열을 가해주면 하루만에도 사용할 수 있다(주영주, 2005).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0대 여성을 위한 제주 문화상품으로서 갈옷 블라우스에 대한 연구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연구 절차

1. 시장 조사

1) 도내 갈옷 판매점 조사

2010년 7월 25~28일 동안 제주도내에서 갈옷을 판매하는 업체 현황에 대해서 인터넷 조사를 하였다. 우선 권숙희, 홍선철(2007)의 연구에서 조사된 업체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갈옷 제조 및 판매 업체로 36곳이 조사되었으며 오프라인 업체 16곳과 온라인 업체 18곳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다시 조사한 결과 4곳은 도내 업체가 아니라 제외하였으며, 온라인 업체는 10곳 오프라인 업체는 5곳이 없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사라진 이유는 갈옷 제조업체가 영세하고 판매량이 부진하여 문을 닫은 것으로 사려된다. 그 외 새롭게 조사된 7곳의 도내 판매점을 포함해서 갈옷을 판매하는 업체는 총 21곳으로 조사되었다. 오프라인 매장 중 '갈옷사랑', '갈중이', '(주)몽생이'는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하는 업체이며 '제주갈옷'은 '제주마켓', '갈옷전문점'은 '뉴월드패션'의 다른 이름인 것으로 '어진이 갈옷'은 어린이 갈옷만을 취급하는 갈옷 판매점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갈옷 판매점의 유형을 분류해본 결과 <표 1>과 같이 판매만을 하는 쇼핑몰 형태(4곳)와 <표 2>와 같이 갈옷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소매점 형태(17곳)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조사하여 분류한 갈옷 판매점의 대표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판매 방식과 디자인 현황을 조사하였다.

쇼핑몰 형태의 판매점의 경우 농산물, 수산물, 특산물과 같이 갈옷 제품을 갈옷 제작 업체에서 들여와 판매한다. 주로 관광객을 위한 판매점이며, 4곳 중 공항 토산품점을 제외한 3곳은 온라인 판매를 한다. 이 곳에 납품하는 갈옷 제품업체는 '(주)몽생이', '갈중이', '이미애공방', '제주 햇살' 등으로 조사됐다.

소매점 형태의 판매점의 경우는 직접 제작을 하고 판매한다. 그리고 제작을 위한 원단도 대부분의 가게에서 직접 염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직접 염색한 원단도 판매하였다. 이러한 판매점은 '갈옷 사랑'(제주민속박물관 앞 위치)을 제외하고는 시내 상가나 주택 단지 안, 또는 시외의 한적한 곳에 분포하고 있어 주 고객이 관광객이 아닌 도내 주민이다. 이러한 형태의 판매점은

〈표 1〉 쇼핑물 형태의 판매점

업체명	주소	사이트주소
이제주몰	제주시 연삼로 495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http://mall.ejeju.net
제주공항 토산품점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	
제주마켓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53번지	http://jejumarket.net
제주명품	제주시 오라 3동 2319-6번지	http://www.jejumyungpum.com

〈표 2〉 소매점 형태의 판매점

업체명	주소	사이트 주소
갈옷나라	서귀포시 회수동	
갈옷마실	제주시 연동 272-33번지	
갈옷사랑	제주시 일도 2동 1046-12번지	http://galot.co.kr
갈옷전문(서사라상가내)	제주시 삼도 1동 520번지	
갈중이	서귀포시 안덕면 시계리 113번지	http://jejung.com
뉴월드패션	제주시 삼도 1동 507-3번지	
명의갈옷	제주시 삼도 1동 561-5번지	
몬딱갈옷전문	제주시 삼도 2동 858번지	
목화이선미갈옷	서귀포시 중앙동 273-3번지	
(주)몽생이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734	http://www.mongsengee.com
올레길갈옷패션	제주시 도남동 923-13번지	
이미에공방	제주시 일도 2동 50-9번지	
이삭갈옷패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29번지	
어진이갈옷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57번지	http://jejueshop.com
제주햇살	제주시 용담1동 135-9번지	
춘강	제주시 아라동 296-30번지	http://www.choonkang.or.kr
황세왓갈옷	제주시 화북 2동 5684번지	

현재 5곳만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8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였다. 갈옷의 장점, 특성에 대해서는 7곳에서,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5곳에서 설명이 되어 있었으며 제품 착의 모습(갈중이, 어진이 갈옷)은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었고 제품의 앞 모습(6곳)만이 게재되어 있었다. 소비자들이 의류 제품을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에는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제품 모습, 착의 모습과 설명으로 제품을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위해 제품 사진과 착의 모습, 다양한 각도에서의 착의 모습과 클로즈업한 상세 모습(소재, 장식, 무늬) 및 제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갈옷 판매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한정된 제품 사진으로 제품을 홍보한다. 그리고 갈옷이 갖는 장점에 대한 설명과 홍보도 부족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유발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오프라인 판매를 하는 17곳의 매장에서는 제품별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66, 77이었으며, 사이즈가 없거나 다른 사이즈를 원할 경우 자체 제작이므로 맞춤 주문이 가능하였고 맞춤 주문하더라도 가격은 동일하였다. 단, 소재 변화 시 가격 변동이 있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일반 의류 매장처럼 아이템별로 디자인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 자신의 체형과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다. 그리고 갈옷을 직접 입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임으로 맞춤새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 선택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생각된다.

2) 갈옷 디자인 현황 조사

갈옷 판매업체의 갈옷 디자인 조사에서 예전에는 생활한복 스타일이 많았으며(홍선철, 2006)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갈옷 디자인이 많이 다양해졌으며 현대복 스타일도 많아졌다. 또한 갈옷의 원단인 갈천의 소재도 다양해졌으며 갈천 염색한 뒤에 또 다른 천연 염색을 하는 등 염색기법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예전과 다르게 갈옷 디자인 및 소재에 대한 발전이 있음에도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도 갈옷에 대해서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20대 여성들에게 선호되는 디자인이 없는 것이 그 이유로 보여진다.

2. 디자인 개요

본 연구에서는 다른 의상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손쉽게 구매하며 티셔츠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로 아이템을 정하였다. 맞음새를 고려하여 20대 체형에 대한 특징을 패턴에 반영하였고, 갈옷으로 표현하기 적합한 빈티지 스타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갈친의 특성상 주로 여름에 입는 옷이고 20대 여성들을 위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긴팔 소매 디자인의 블라우스는 제외하였다. 시중에 파는 갈옷 블라우스를 보면 반팔 소매 디자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팔 소매 디자인의 블라우스가 거의 없는 이유는 갈친의 특성인 뺏뺏함이 소매를 부각시켜 어깨를 확장시켜 보이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그래서 시도된 5가지 디자인 중 4가지 디자인은 민소매이며 1가지는 반팔 소매의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20대 여성들을 위한 5가지 블라우스 디자인은 기본 스타일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디자인 개요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블라우스 디자인 개요

블라우스	디자인 개요
블라우스 I	민소매에 앞여밈이 있는 셔츠 칼라 블라우스이다. 가슴다트와 어깨다트를 사용하였으며 허리다트를 하지 않았지만 허리둘레 옆선에서 허리가 들어가게 하여 맞음새가 맞으면서도 여유있는 핏을 주는 디자인으로 하였다. 여름철에는 겉옷으로 계절에 따라 가디건이나 자켓에 조화시켜 입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블라우스 II	민소매에 앞여밈이 있고 진동에서 시작된 프린세스 라인이 들어간 라운드 네크라인 블라우스이다. 프린세스 라인으로 바디라인을 아름답게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맞음새가 피트하도록 허리 옆선과 뒤중심을 잡아 주는 디자인으로 하였다. 플레이 스커트나 주름 스커트와의 조화가 적절하도록 설계하였다.
블라우스 III	민소매에 라운드 네크라인이며 영딩이를 덮을 정도 길이의 블라우스로 요세 트렌드에 맞춰 레깅스나 스키니 진과의 매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하였다. 옆트임을 길게 두었으며 주머니에 포인트를 두어 평범함에서 벗어나 생동감을 주도록 연출하였다.
블라우스 IV	민소매에 앞여밈이 있고 라운드 네크라인에 안단처리를 하여 그 안에 끈을 통과시켜 목 앞에서 묶는 리본 장식의 블라우스이다. 옆 트임이 있으며 트레이닝 바지와 매치로 길이가 짧지만 부담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블라우스 V	반팔에 앞트임이 있는 라운드 네크라인인 티셔츠 스타일이다. 옆 트임을 주어 착장 시 더욱 편리하게 설계하였다. 소매의 부해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갈천 소재의 사용을 적용할 것이고 질감이 다른 소재와의 조화를 연출하도록 설계하였다.

3. 원단 및 사이즈 선정

1) 원단 선정

본 연구에서 블라우스 제작에 사용된 원단은 의류학과 학생들이 갈옷 제작시 사용하는 원단으로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원단은 면 100%인 원단에 감물 염색한 갈천 원단과 철매염한 갈천 원단으로, 총 7종의 갈천 원단을 사용하였고 그 중 철매염한 갈천 원단은 4종을 사용하였다. 갈천으로 블라우스의 빈티지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뒷면의 사용과 다른 원단끼리의 조합도 하였다. 본 연구의 블라우스 제작을 위해서 사용한 갈천은 다음 <표 4>와 같다.

2) 사이즈

블라우스 제작을 위한 사이즈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에 제시된 20대 여성의 표준체형 신체치수를 적용하였다. 엉덩이길이의 경우 허리 높이에서 엉덩이높이의 차를 통해 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20대 여성의 표준체형 신체치수와 적용치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3) 그레이딩 편차

그레이딩을 위한 편차는 한국산업규격 KS K2004(안)에서 제시된 대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3cm, 키는 5cm 간격으로 하였다. 그래서 그레이딩을 위해 적용된 신체치수 키-가슴둘레-허리둘레-엉덩이둘레는 160-80-65.5-88.5(이하 160-80), 165-86-71.5-94.5(이하 165-86)이다. 여기서 등길이의와 옷길이의 편차는 다음 <표 6>과 같다. 등길이의 경우 160-80은 160-83과 동일하고, 165-86은 160-83보다 1cm 길게 하였다. 옷길이의 경우 160-80은 160-83과 동일하고, 165-86은 160-83과 비교했을 때 민소매 롱 블라우스는 2.5cm, 나머지 4가지 블라우스는 1.5cm 길게 하였다.

〈표 4〉 원단의 특성

직물명	재질	조직	두께(mm)	밀도(올/5cm) 경사×위사	
A		면 100%	합성조직	0.57	212×134
B		면 100%	평직	0.35	144×128
C		면 100%	평직	0.37	118×92
D		면 100%	평직	0.34	110×110
E		면 100%	평직	0.44	58×46
F		면 100%	평직	0.375	144×128
G		면 100%	평직	0.51	58×46

〈표 5〉 20대 여성의 표준체형 신체치수

(단위:cm)

	키	등길이	앞중심길이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길이 (허리높이-엉덩이높이)
신체치수	160.01	38.0	31.9	82.93	68.62	91.4	99.62-77.96 = 21.66
적용치수	160.00	38.0	32.0	83.00	68.50	92.0	21.70

〈표 6〉 그레이딩을 위한 등길이, 옷길이 편차

단위(cm)

부위	치수	165-86			
		160-80	160-83	165-86	
등길이		0	0	1	
옷길이		0	0	블라우스 III	2.5
				그 외(4가지)	1.5

4. 본 연구를 위한 패턴

본 연구를 위한 패턴은 권숙희(2000)식으로 하여 토루소 원형을 제작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5가지 블라우스의 패턴을 완성하였다. 맞음새를 고려하여 목부위의 들뜸분 삭제, 진동둘레의 파임, 트임 길이, 여유분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였고 광복衣에 의한 예비 착의실험을 통해 여러 번의 보정을 거쳐 도식화의 블라우스 패턴을 완성하였다.



5. 블라우스 제작

광복으로 제작한 광복衣로 2차 예비 실험을 한 후 수정, 보완한 패턴으로 5가지 갈옷 블라우스를 제작하였다.

1) 제작

5가지 디자인의 블라우스를 <표 4>의 갈친 및 철매염한 갈친으로 제작하였다. 각각의 블라우스 디자인에 따라 빈티지스런 표현을 하였다.

2) 피험자 선정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에 포함되는 피험자 1명을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치수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피험자 신체치수

(단위: cm)

	키	등길이	앞중심길이	가슴둘레 (젓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길이 (허리높이-엉덩이높이)
신체치수	163.2	37.5	31.5	84.1	68.0	92.5	22.0

3) 사진 촬영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에 포함되는 피험자 1명이 제작된 5가지 갈옷 블라우스를 입고 앞, 옆, 뒤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험자는 상의에는 기본 속옷을 하의에는 검정색 스커트를 입고 사진 촬영하였다.

6. 설문지 평가

1) 평가 방법

20대 여성 49명(제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이 피험자가 착의하고 찍은 5가지 갈옷 블라우스(앞, 옆, 뒤)의 사진을 보고 설문에 답하였으며 이 중 불확실한 것을 제외한 45부를 평가하였다. 설문 문항은 문항에 따라 빈도를 구하거나 Likert Type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2) 평가 내용

피부 질환 여부 및 갈천에 대한 설문지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의 설문지 내용은 20대 여성의 피부질환 여부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1번), 갈천이 갖고 있는 피부에 좋은 기능성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2번~6번), 갈천에 대한 선입견과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7번~9번), 전통적 갈색과 철매염한 카키색 갈천의 색상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10번), 20대 여성들의 빈티지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11번)이다. 제작된 5가지 블라우스 각각에 대한 설문지 내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의 설문지 내용은 각각의 블라우스에 대한 선호도, 구매 정도, 빈티지 스타일 부합 정도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표 8〉 피부 질환 여부 및 갈천에 대한 설문지 내용

1번	알러지나 아토피 등 피부질환 병력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				
2번	갈천이 피부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고 있지 않다	별로 알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2	3	4	5
3번	갈천의 항알러지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고 있지 않다	별로 알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2	3	4	5
4번	갈천의 항아토피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고 있지 않다	별로 알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2	3	4	5
5번	갈천의 항균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고 있지 않다	별로 알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번	갈천의 방취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고 있지 않다	별로 알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2	3	4	5
7번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균성, 방취성 등에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이 있다면 구매하시겠습니까?	전혀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별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구매하고 싶다	매우 구매하고 싶다
		1	2	3	4	5
8번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균성, 방취성 등에 좋은 갈천으로 만든 옷이 있다면 구매하시겠습니까?	전혀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별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구매하고 싶다	매우 구매하고 싶다
		1	2	3	4	5
9번	갈옷의 선호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갈천의 색상 (갈색)		갈천의 물성 (뻣뻣함, 구겨짐)	갈옷의 디자인	
		1		2	3	
10번	갈옷의 색상 선호도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갈색 ()			카키색 ()	
11번	빈티지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1	2	3	4	5

〈표 9〉 블라우스에 대한 설문지 내용

문항		척도				
1번	블라우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1	2	3	4	5
	이러한 갈옷 블라우스가 판매 된다면 구매 의향은 어떻습니까?	전혀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별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구매하고 싶다	매우 구매하고 싶다
		1	2	3	4	5
	빈티지 스타일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부합하다	매우 부합하다
		1	2	3	4	5
2번	블라우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1	2	3	4	5
	이러한 갈옷 블라우스가 판매 된다면 구매 의향은 어떻습니까?	전혀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별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구매하고 싶다	매우 구매하고 싶다
		1	2	3	4	5
	빈티지 스타일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부합하다	매우 부합하다
		1	2	3	4	5
3번	블라우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1	2	3	4	5
	이러한 갈옷 블라우스가 판매 된다면 구매 의향은 어떻습니까?	전혀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별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구매하고 싶다	매우 구매하고 싶다
		1	2	3	4	5
	빈티지 스타일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부합하다	매우 부합하다
		1	2	3	4	5
4번	블라우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1	2	3	4	5
	이러한 갈옷 블라우스가 판매 된다면 구매 의향은 어떻습니까?	전혀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별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구매하고 싶다	매우 구매하고 싶다
		1	2	3	4	5
	빈티지 스타일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부합하다	매우 부합하다
		1	2	3	4	5
5번	블라우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1	2	3	4	5
	이러한 갈옷 블라우스가 판매 된다면 구매 의향은 어떻습니까?	전혀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별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구매하고 싶다	매우 구매하고 싶다
		1	2	3	4	5
	빈티지 스타일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부합하다	매우 부합하다
		1	2	3	4	5

IV. 연구 결과

연구에서 제작될 5가지 블라우스 디자인의 개요에 따라 도식화를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갈옷 블라우스는 20대 여성 표준체형 신체치수를 적용하여 권숙희 (2000)식으로 패턴을 완성하였으며, 갈천 및 철매염한 갈천으로 제작하였다. 이에 각각의 블라우스 도식화와 패턴, 완성하여 착의한 모습, 설문 평가 결과, 그레이딩하여 패턴이 전개된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디자인 도식화

앞서 설명한 디자인 개요에 따른 5가지 갈옷 블라우스 디자인의 도식화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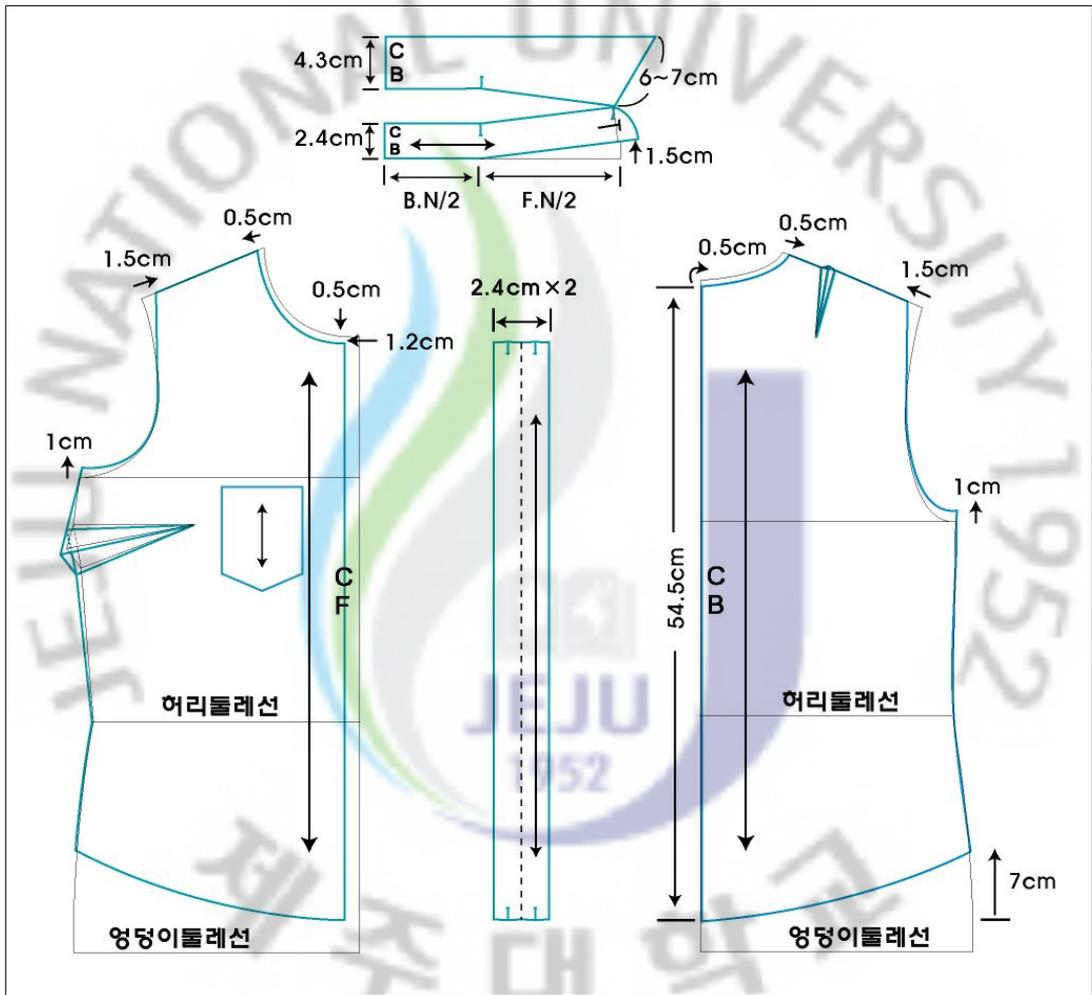
〈그림 6〉 5가지 디자인의 블라우스 도식화

2. 패턴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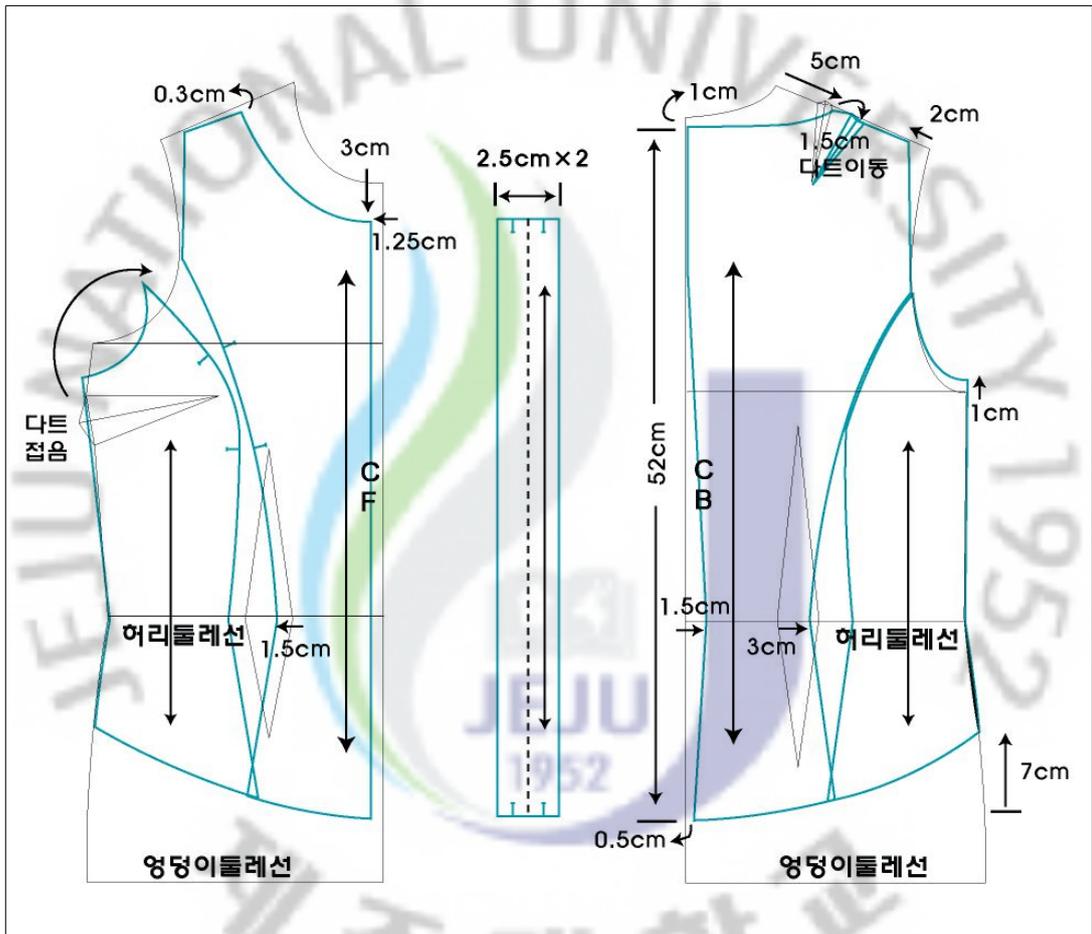
5개의 개발 블라우스의 패턴디자인은 2번의 광복衣 착의실험을 거쳐 보정을 거듭하여 완성하였다. 그 결과와 보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7>은 민소매에 앞여밈이 있고 와이셔츠 칼라가 달린 블라우스 I의 패턴이다. 블라우스 I의 패턴은 목둘레에 약간의 여유를 주기위해 기본 원형 패턴의 앞목, 옆목, 뒤목점에서 0.5cm, 0.5cm, 0.5cm 파주었으며, 어깨는 1.5cm 파주어 소매 활동을 편하게 하였다. 기본 토루소 원형에서 피트감을 준 패턴임으로 진동 높이를 1cm만 올려 겨드랑이 파임의 맞음새를 좋게 하였다. 앞여밈 너비는 2.4cm로 하여 앞중심에서 1.2cm를 들어가 패턴을 완성하였다. 옆선을 7cm 파서 앞, 뒤중심 부분과 둥근 라인을 살려 주었다. 패턴의 뒤옷길이는 전체옷길이 55cm에서 뒤목을 0.5cm 파주어 54.5cm이며, 칼라의 밴드높이는 2.3cm, 칼라너비는 4.3cm로 하였다.

<그림 8>은 민소매에 앞여밈이 있고 진동에서 시작된 프린세스 라인이 들어간 라운드 네크라인인 블라우스 II의 패턴이다. 블라우스 II 패턴은 기본 원형 패턴의 앞목, 옆목, 뒤목점에서 3cm, 5cm, 1cm 파주었고, 목파임에 생긴 들뜸분을 없애기 위해 앞판, 뒤판 목둘레를 0.3cm씩 삭제하였다. 어깨는 1.5cm 파주어 소매 활동을 편하게 하였다. 진동높이는 피트감이 있는 패턴임으로 1cm만 올려 겨드랑이 파임의 맞음새를 좋게 하였다. 앞여밈 너비는 2.5cm로 하여 앞중심에서 1.25cm를 들어가 패턴을 완성하였다. 앞진동에서 시작되는 프린세스 라인은 앞겨드랑이 앞벽점에서 1cm 내린 점과 허리선에서 허리다트를 옆선쪽으로 1.5cm 옮긴 점과 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으며 허리아래 다트끝점은 교차하였다. 뒤진동에서 시작되는 프린세스 라인은 뒤겨드랑이뒤벽점에서 1cm 내린 점과 허리선에서 허리다트를 옆선 쪽으로 3cm 옮긴 점과 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으며 허리아래 다트끝점은 앞판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허리다트 교차로 인해 허리다트 아래의 여유와 옆선을 7cm 파서 앞, 뒤 중심 부분의 둥근 라인으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뒤허리 중심은 1.5cm, 뒤옷길이 끝은 0.5cm 들어가 뒤중심의 맞음새를 좋게하였다. 어깨다트의 경우는 어깨 쪽으로 1.5cm 옮겼다. 패턴의 뒤



<그림 7> 블라우스 I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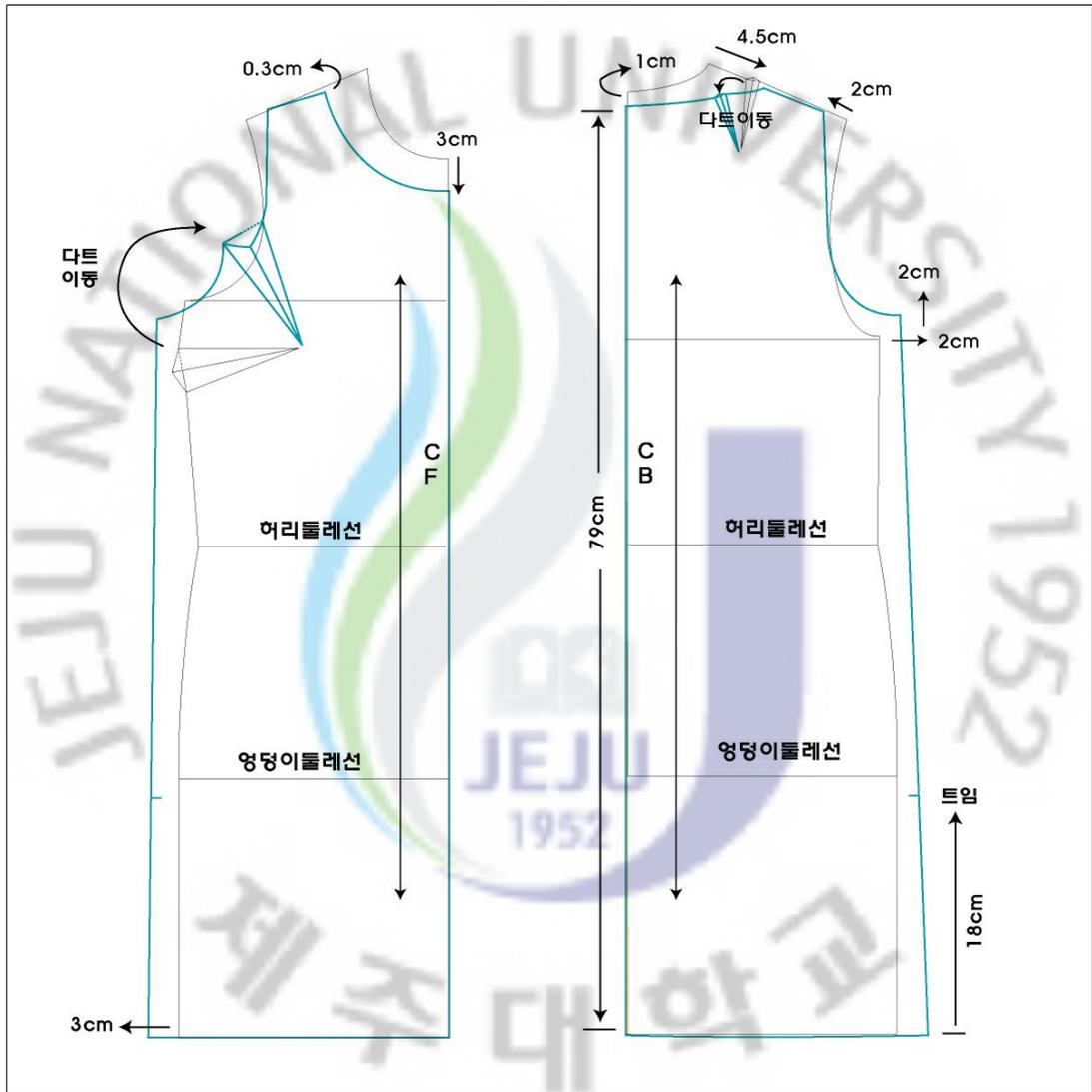
<그림 8> 블라우스 II 패턴

옷길이는 전체 옷길이 53cm에서 뒤목 1cm를 파주어 52cm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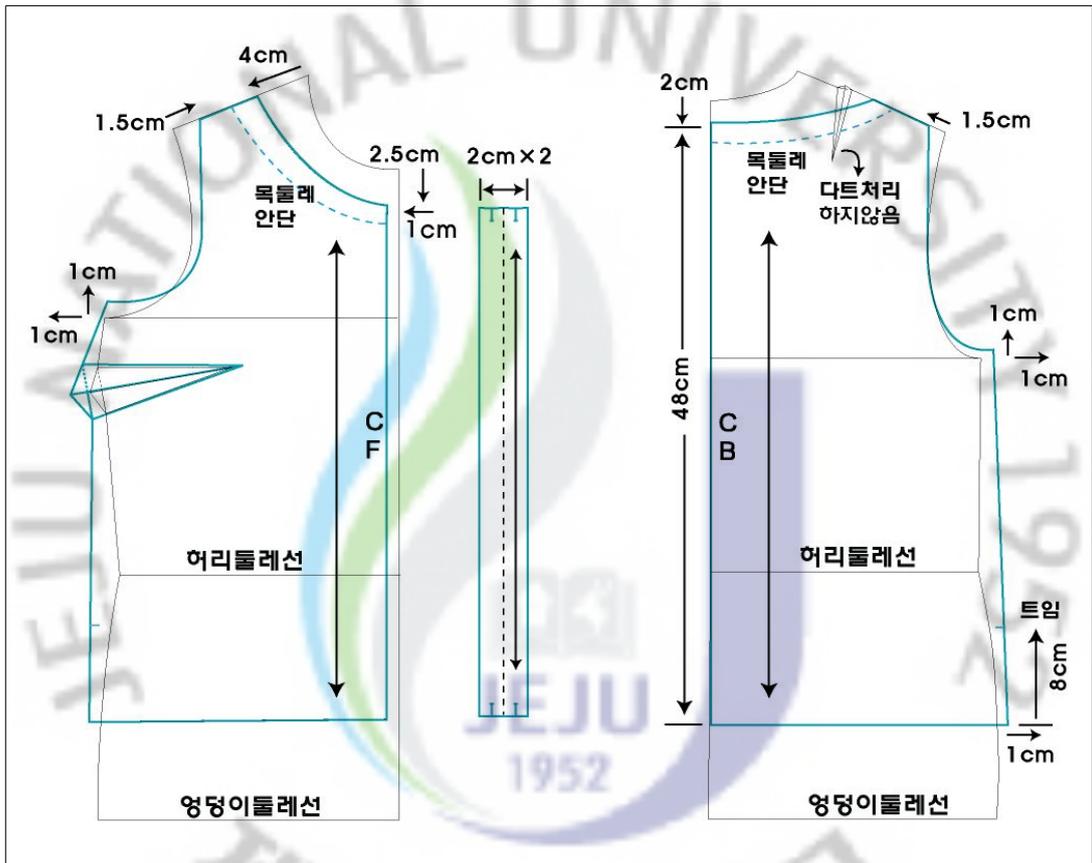
<그림 9>는 민소매에 라운드 넥라인이며 엉덩이를 덮을 정도의 길이의 블라우스 III의 패턴이다. 블라우스 III 패턴은 기본 원형 패턴의 앞목, 옆목, 뒤목점에서 3cm, 4.5cm, 1cm 파주었고, 목과입에 생긴 들뜸분을 없애기 위해 앞판, 뒤판의 목둘레를 0.3cm씩 삭제하였다. 어깨는 1.5cm 파주어 소매 활동을 편하게 하였다. 가슴둘레는 2cm 넓히고 넓은 만큼 진동높이를 2cm 올려 겨드랑이 파임을 적절하게 하여 맞음새를 좋게 하였다. 가슴다트는 앞겨드랑이앞벽점에서 1cm내린 진동부분으로 다트이동 하였고 어깨다트 또한 목둘레 파임에 의해 어깨다트분이 걸려서 뒤판 뒤목점에서 목둘레의 2/3지점으로 다트이동 하였다. 엉덩이둘레선에서 옷길이만큼 내린 선에서 3cm 여유를 주어 진동둘레의 맞음새를 고려한 박스 스타일의 블라우스 패턴을 제작하였다. 옆선에 18cm 트임으로 착의하기 편하게 하였으며 패턴의 뒤 옷길이는 전체 옷길이 80cm에서 뒤목을 1cm 파주어 79cm로 하였다.

<그림 10>은 민소매에 앞여밈이 있고 라운드 넥라인에 리본 장식을 한 블라우스 IV의 패턴이다. 블라우스 IV 패턴은 기본 원형 패턴의 앞목, 옆목, 뒤목점에서 2.5cm, 4cm, 2cm 파주었고, 목둘레 처리를 안단으로 하여 안단 안에 또 다른 갈천으로 끈을 만들어 달아 잡아당기는 디자인이므로 목둘레 들뜸분에 대한 삭제처리를 하지 않았고, 어깨다트분도 여유로 남겨두었다. 어깨는 1.5cm 파주어 소매 활동을 편하게 하였다. 가슴둘레는 1cm 넓히고 진동높이는 1cm 올려 겨드랑이 파임의 맞음새를 좋게 하였다. 옆선 옷길이 끝에서 1cm 넓히고 옆선에 8cm 트임을 하였다. 앞여밈 너비는 2cm로 하여 앞중심에서 1cm 들어가 패턴을 완성하였다. 패턴의 뒤옷길이는 전체 옷길이 52cm에서 뒤목을 2cm 파주어 50cm로 짧은 길이의 블라우스 패턴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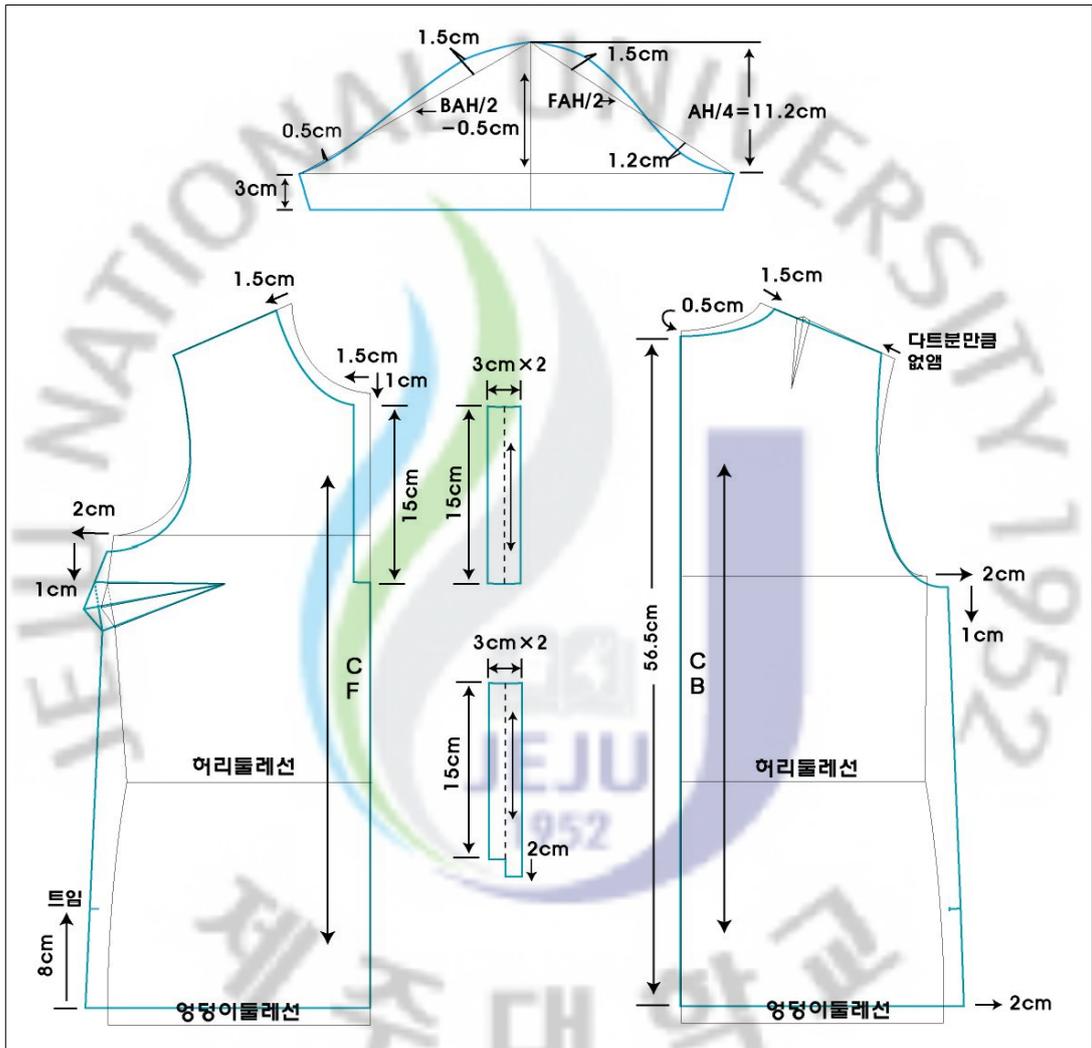
<그림 11>은 반팔에 앞트임이 있고 라운드 넥라인인 티셔츠 스타일의 블라우스 V의 패턴이다. 블라우스 V 패턴은 기본 원형 패턴의 앞목, 옆목, 뒤목점에서 1cm, 1.5cm, 0.5cm 파주었다. 가슴둘레는 2cm 여유를 주고 진동 높이는 소매를 달기 때문에 겨드랑이 부분을 편하게 하기위해 1cm 내렸다. 어깨다트는 어깨다트가 없는 패턴을 위해 어깨점에서 어깨다트분만큼 삭제하였다. 옆선의 옷길이 끝에서 2cm 여유를 주고 옆선에 8cm 트임을 하였다. 앞 트임 너비는 3cm로 하



<그림 9> 블라우스 III 패턴



<그림 10> 블라우스 IV 패턴



<그림 11> 블라우스 V 패턴

여 앞중심에서 1.5cm 들어가고 길이는 15cm로 하여 패턴을 완성하였다. 패턴의 뒤 옷길이는 전체 옷길이 57cm에서 뒤목을 0.5cm 파주어 56.5cm로 하였다. 소매산 높이는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소매산을 (앞 + 뒤 진동둘레)/4로하여 패턴을 제작하였다. 이에 따른 소매산 높이는 14.2cm이다.



3. 착의 사진 제시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에 포함되는 피험자가 빈티지 스타일로 제작된 5가지 갈옷 블라우스를 입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 피험자는 상의에는 기본 속옷을 하의에는 검정색 스커트를 입고 사진 촬영하였다. 제작된 5가지 갈옷 블라우스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는 블라우스 I을 착용한 피험자의 앞, 옆, 뒤 모습이다. 여기에 사용된 앞판, 뒤판 원단은 <표 4>의 A로 자카드인 면소재 원단을 감물 염색한 후 철매염을 한 원단으로 표면감이 거친듯하여 빈티지하게 표현하기 적당하였고, 앞여밈, 칼라,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원단은 <표 4>의 B로 앞판, 뒤판 원단보다 두께가 얇으면서 철매염한 갈천 원단으로 더 연하고 흐릿한 색상을 위해 원단 뒷면을 이용하여 통일감을 주면서 빈티지스러움을 표현하였다.

<그림 13>은 블라우스 II를 착용한 피험자의 앞, 옆, 뒤 모습이다. 여기에 사용된 원단은 <표 4>의 C로 꽃무늬가 있는 면소재 원단으로 감물 염색한 결과 꽃무늬 부분은 감물염색이 되지 않아 하얀색이다. 블라우스의 피트감과 프린세스라인이 여성의 몸매 라인을 살리므로 이를 극대화 시키고자 여성스러운 꽃무늬 갈천 원단을 사용하여 이를 표현하였다. 오래된듯한 갈색과 흰색의 꽃무늬 조화로 빈티지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림 14>는 블라우스 III를 착용한 피험자의 앞, 옆, 뒤 모습이다. 여기에 사용된 원단은 <표 4>의 D로 얇은 면소재에 감물 염색과 철매염을 한 원단으로 염색과정에서 생긴 농도 짙은 식물 줄기같은 무늬가 자연스럽게 있어 빈티지스럽다. 엉덩이를 덮는 길이로 레깅스 바지나 스킨 바지에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이다. 주머니 장식에 시접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주머니 위부분에 구겨진듯하게 표현하여 빈티지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림 15>는 블라우스 IV를 착용한 피험자의 앞, 옆, 뒤 모습이다. 여기에 사용된 앞판, 뒤판 원단은 <표 4>의 D로 중간 두께 소재의 면 원단에 감물 염색과 철매염을 한 원단으로 여기서는 원단의 뒷면을 사용하였다. 옷길이를 짧게 하고 트임을 주었으며, 목둘레에 안단 처리를 하였다. 목둘레를 통과하는 끈을 만



<그림 12> 블라우스 I



<그림 13> 블라우스 II



<그림 14> 블라우스 III



<그림 15> 블라우스 IV

들기위해 사용된 원단은 <표 4>의 E로 면소재 소창을 철매염한 갈천이다. E 원단으로 해진 느낌의 끈을 만들어 빈티지스러움을 주었고 목둘레 안단 안을 통과시켜 리본장식을 하여 여성스러움을 더하였다.

<그림 16>은 블라우스 V를 착용한 피험자의 앞, 옆, 뒤 모습이다. 여기에 사용된 앞판, 뒤판 원단은 <표 4>의 F로 면 소재에 감물 염색한 원단이며, 앞트임 부분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소매에 사용된 원단은 <표 4>의 G로 면소재 소창으로 감물 염색한 갈천을 사용하였다. 갈천 원단의 뻣뻣한 특성 때문에 반팔 소매를 제작하면 소매에 부피감이 생겨 어깨가 넓어 보이는 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성글게 짜여진 소창 갈천 원단으로 반팔 소매를 만들어 부피감을 줄였다. 그리고 주머니 아랫 부분은 앞판, 뒤판에 사용한 갈천 원단 F를 주머니 윗 부분은 소창 갈천 원단 G를 사용하였고 소창 갈천 원단의 시접 처리를 하지 않아 빈티지스러움을 표현하였다.



<그림 16> 블라우스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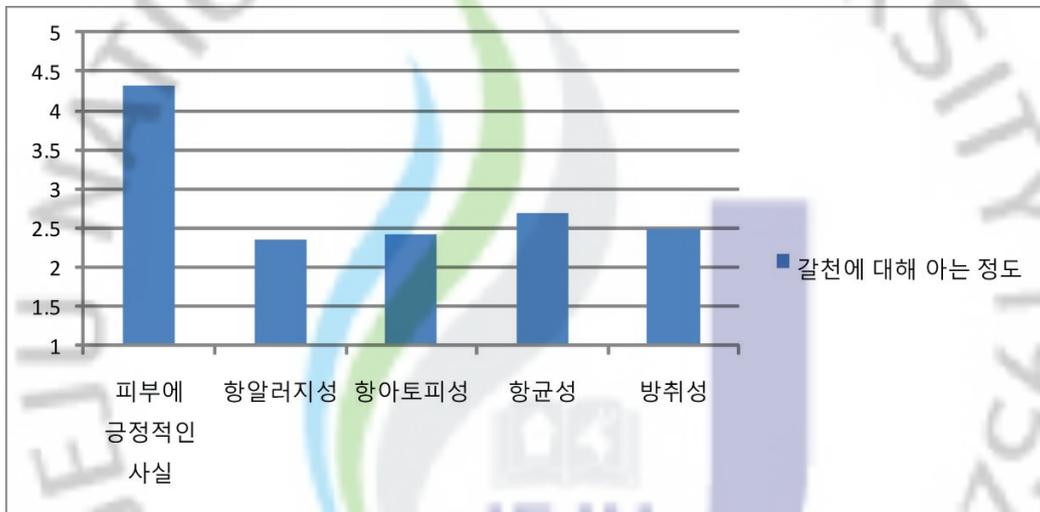
4. 설문지 평가 결과

알러지, 아토피 등 피부질환 여부에 대해서는 14명이 있다고 답해 31.1%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여성의 피부 질환 여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갈천이 피부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평균 4.32가 나와 갈천이 피부에 좋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였으나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균성, 방취성에 대한 각각의 평균은 2.36, 2.41, 2.68, 2.48로 대체로 알고 있지 않은 편으로 나왔다.

<그림 17>의 그래프에서 갈천의 피부환경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는 높으나 그 상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갈천의 피부환경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균성, 방취성에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이 있다면 구매하겠는가에 대해서는 평균 3.89가 나왔고,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균성, 방취성에 좋은 갈천으로 만든 옷이 있다면 구매하겠는가에 대해서는 평균 3.52인 것으로 나와 일반 옷감에 비해 갈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갈옷의 선호도에 부정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57.8%가 갈옷의 색상(갈색)이라고 답해 갈옷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의 이유는 갈천의 색상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갈옷의 선호하는 색상으로 제시된 갈색과 카키색 중 75.6%가 카키색을 선호한다고 답해 갈천의 전통적인 색상인 갈색에 대한 20대 여성의 선호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3.76이 나와 선호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가지 갈옷 블라우스에 대한 설문 평가에서 각각의 갈옷 블라우스 선호도는 3.50, 2.87, 3.74, 3.21, 3.09으로 블라우스 III, I, IV, V, II순으로 선호도가 낮고 블라우스 V, II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구매 정도는 3.30, 2.74, 3.70, 3.07, 2.91로 이 또한 블라우스 III, I, IV, V, II순으로 구매 정도가 낮으며 블라우스 V, II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부합 정도는 3.13, 2.63, 3.57, 2.87, 2.96으로 블라우스 III, I, V, IV, II순으로 낮으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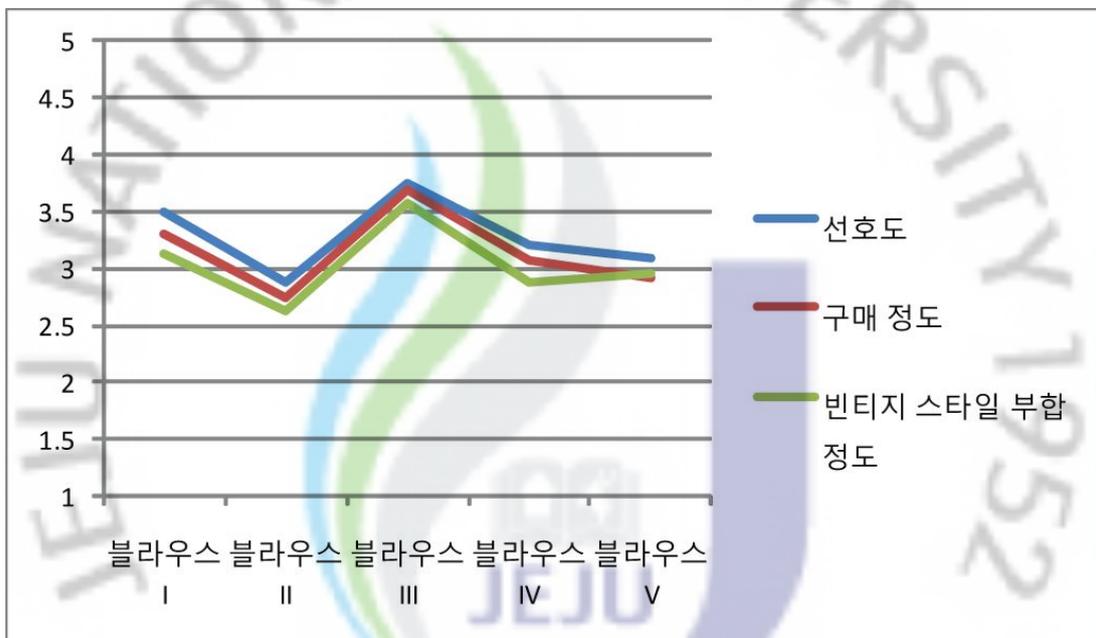


<그림 17> 갈천의 피부 환경에 긍정적인 점에 대해 아는 정도

중 블라우스 III과 I의 빈티지 부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선호도 및 구매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블라우스의 색상이 갈색인 V와 II의 선호도 및 구매 정도가 낮아 블라우스의 갈색 색상이 선호도 및 구매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빈티지 스타일 부합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와 빈티지 스타일에는 적합하지 않은 색상인 것으로 사려된다.

<그림 18>의 그래프를 보면 빈티지 스타일 부합 정도가 높은 블라우스가 선호도 및 구매 정도가 높고, 빈티지 스타일 부합 정도가 낮은 블라우스가 선호도 및 구매 정도가 낮아 빈티지 스타일 부합 정도가 선호도 및 구매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티지 스타일의 부합 정도가 높음에 따라 선호도도 높고 구매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아 갈옷의 빈티지 스타일 표현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 개발에 있어 빈티지 스타일을 적용시켜 제작한다면 상품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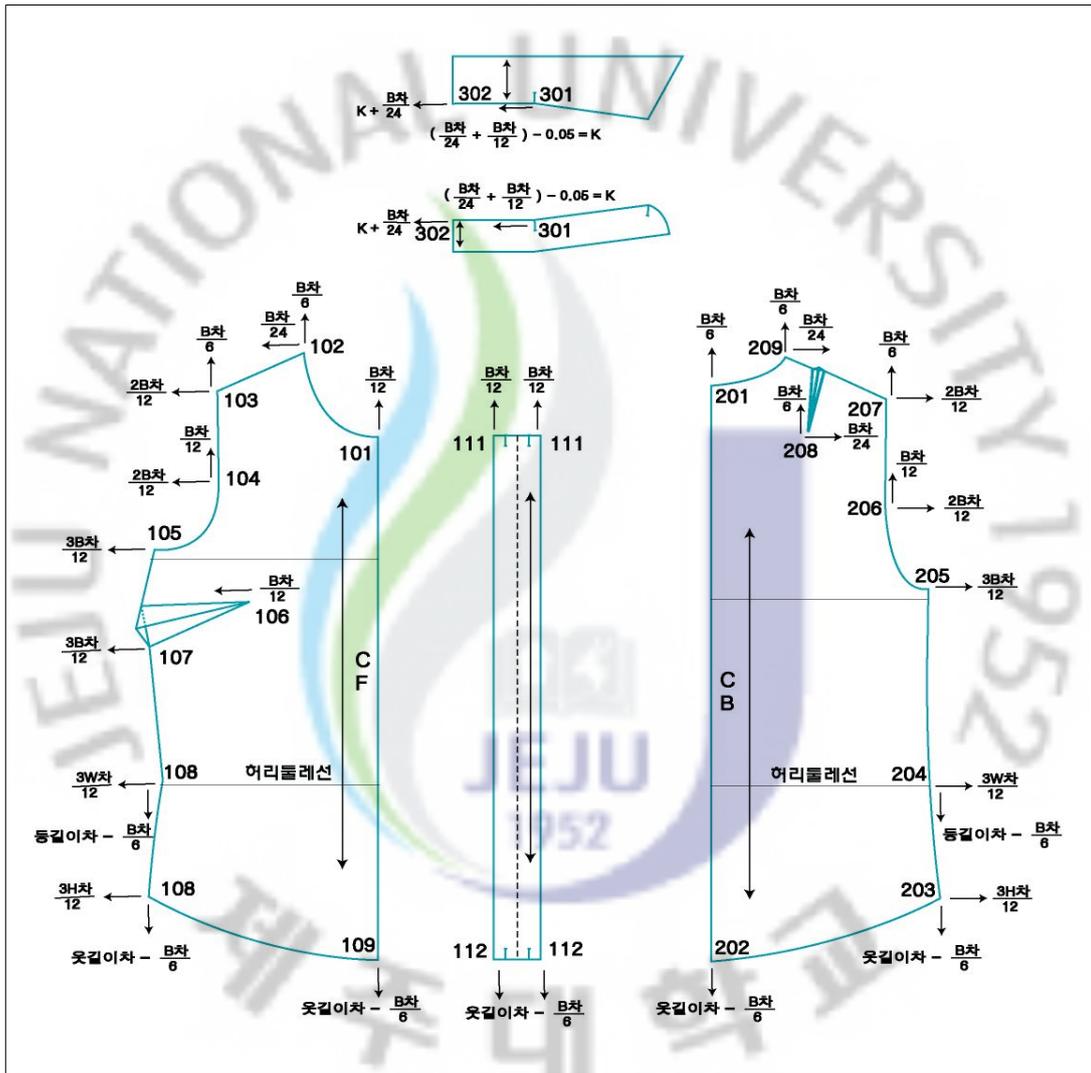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갈천의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균성, 방취성 등 피부 환경에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20대 여성을 위해 색상을 고려한 빈티지 스타일의 갈옷을 제작한다면 제주 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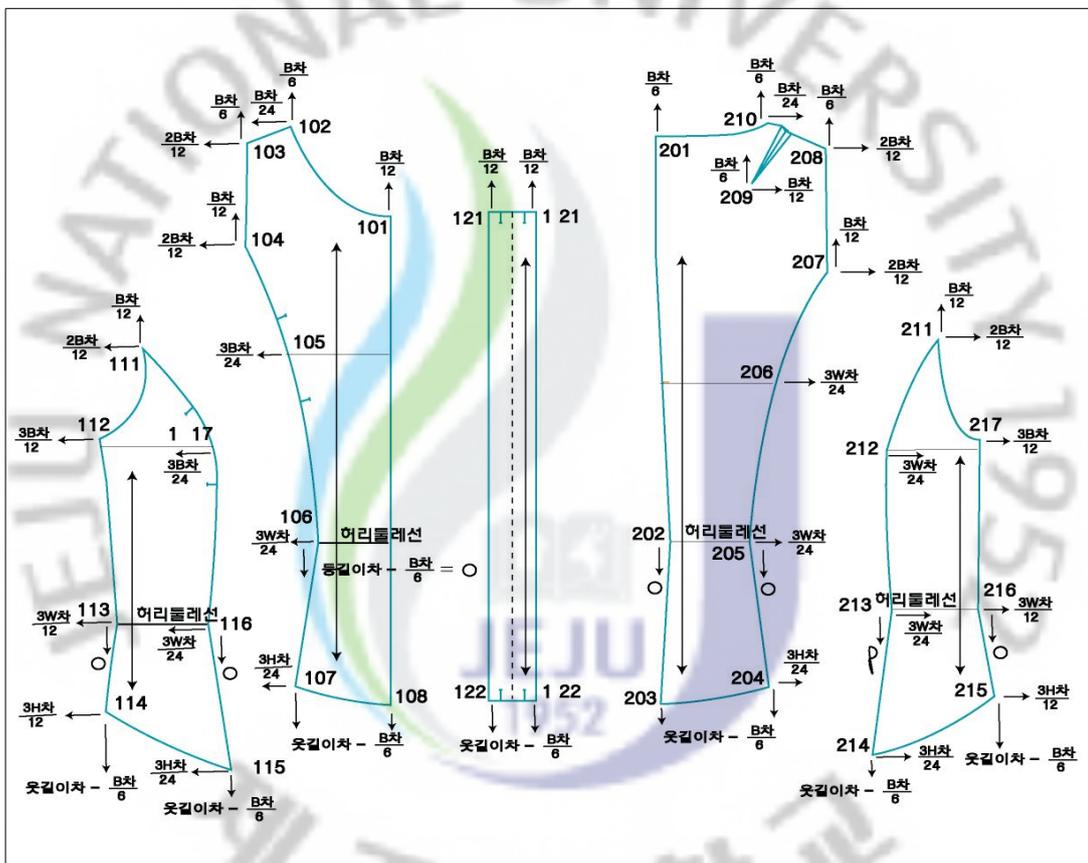
<그림 18> 5가지 블라우스의 선호도, 구매 정도 및 빈티지 스타일 부합 정도

5. 패턴디자인 별 그레이딩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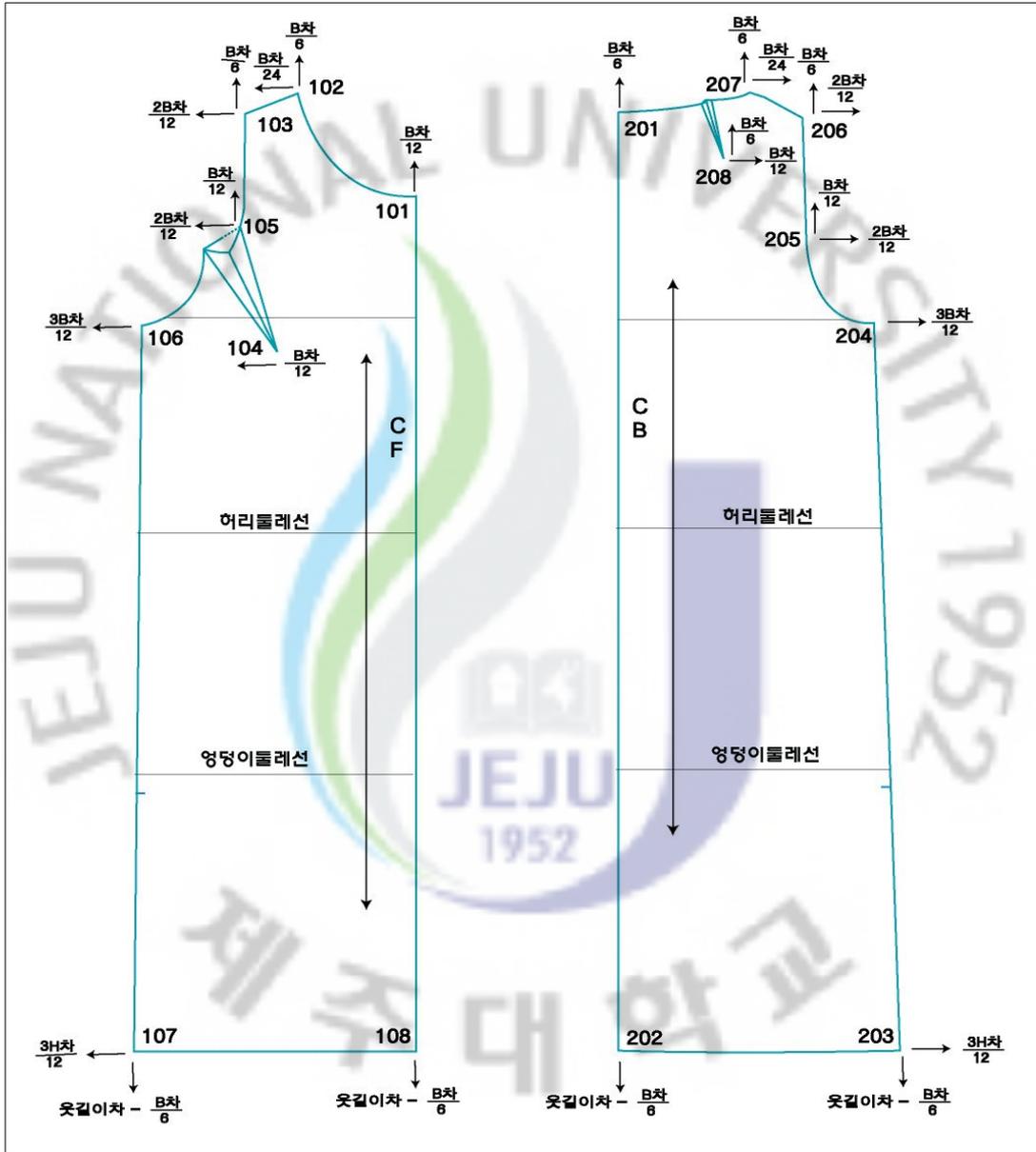
그레이딩을 위한 편차는 20대 여성 표준 체형(160-83)을 기준으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3cm, 키는 5cm로 적용시켜 그레이딩 하였다. 그래서 그레이딩을 위해 적용된 신체치수는 160-80, 165-86이다. 여기서 등길이의 경우 160-80은 160-83과 동일하고, 165-86은 160-83보다 1cm 길게 하였다. 옷길이의 경우 160-80은 160-83은 동일하고 165-86은 160-83과 비교해서 민소매 롱 블라우스의 경우 2.5cm, 나머지 4가지 블라우스의 경우 1.5cm 길게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5가지 블라우스의 패턴은 조영아(1999)식을 참고로 그레이딩 하였으며, 그레이딩 룰은 <그림 19>~<그림 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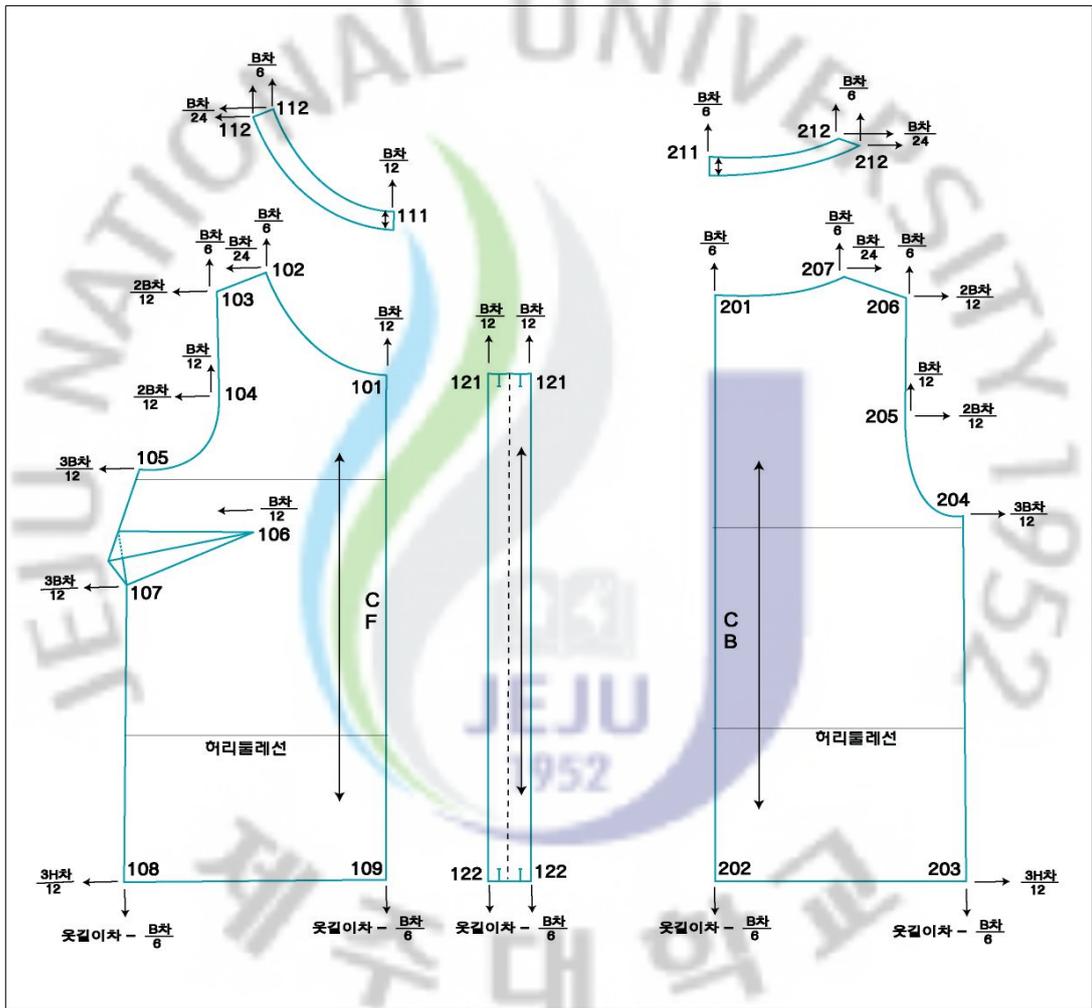
<그림 19> 블라우스 I의 그레이딩 룰



〈그림 20〉 블라우스 II의 그레이딩 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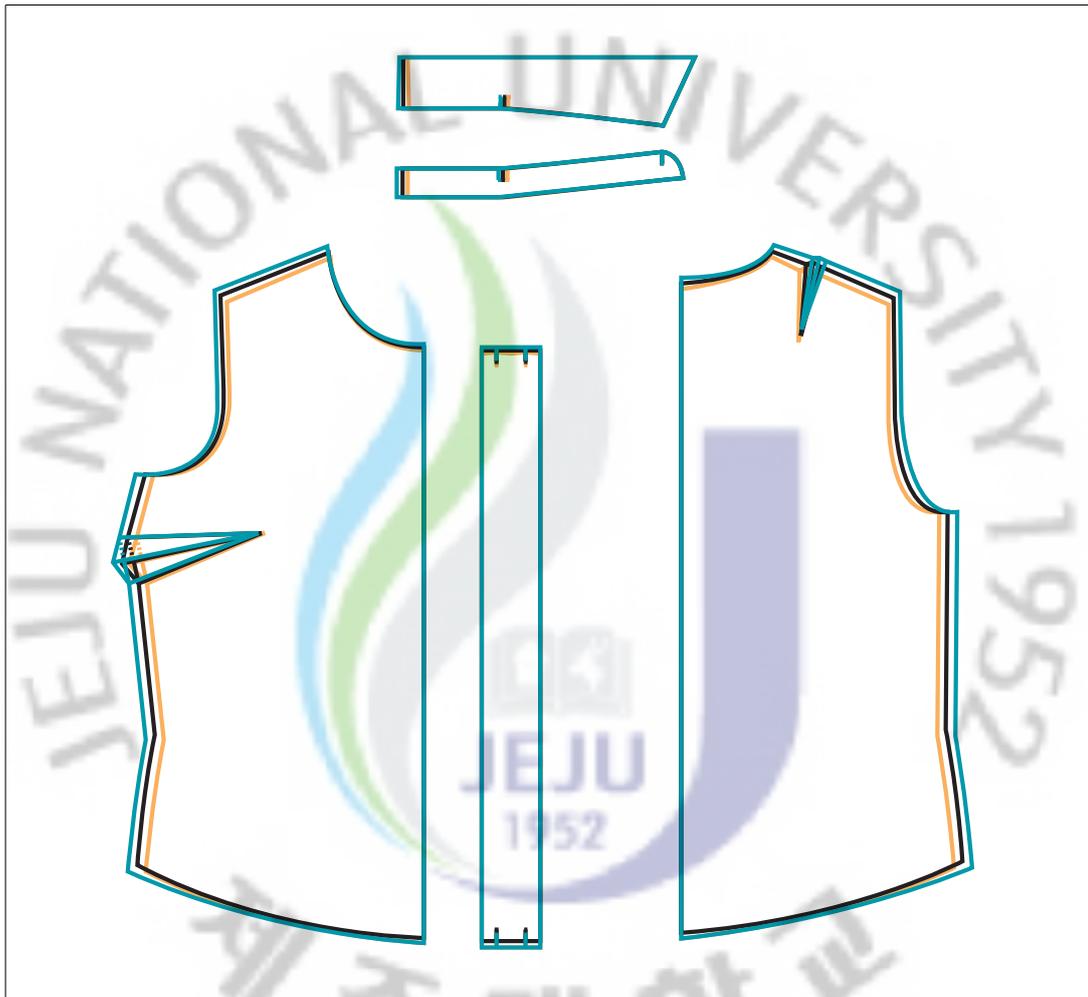


<그림 21> 블라우스 III의 그레이딩 플



<그림 22> 블라우스 IV의 그레이딩 룰

<그림 19>~<그림 23>에서와 같이 5가지 블라우스 디자인에 그레이딩 룰을 적용시켜 패턴을 전개한 모습은 다음 <그림 24>~<그림28>과 같다.



<그림 24> 블라우스 I의 그레이딩 전개도

<그림 19>와 같은 방법으로 그레이딩 룰을 적용하여 블라우스 I을 그레이딩하여 패턴이 전개된 모습은 위 <그림 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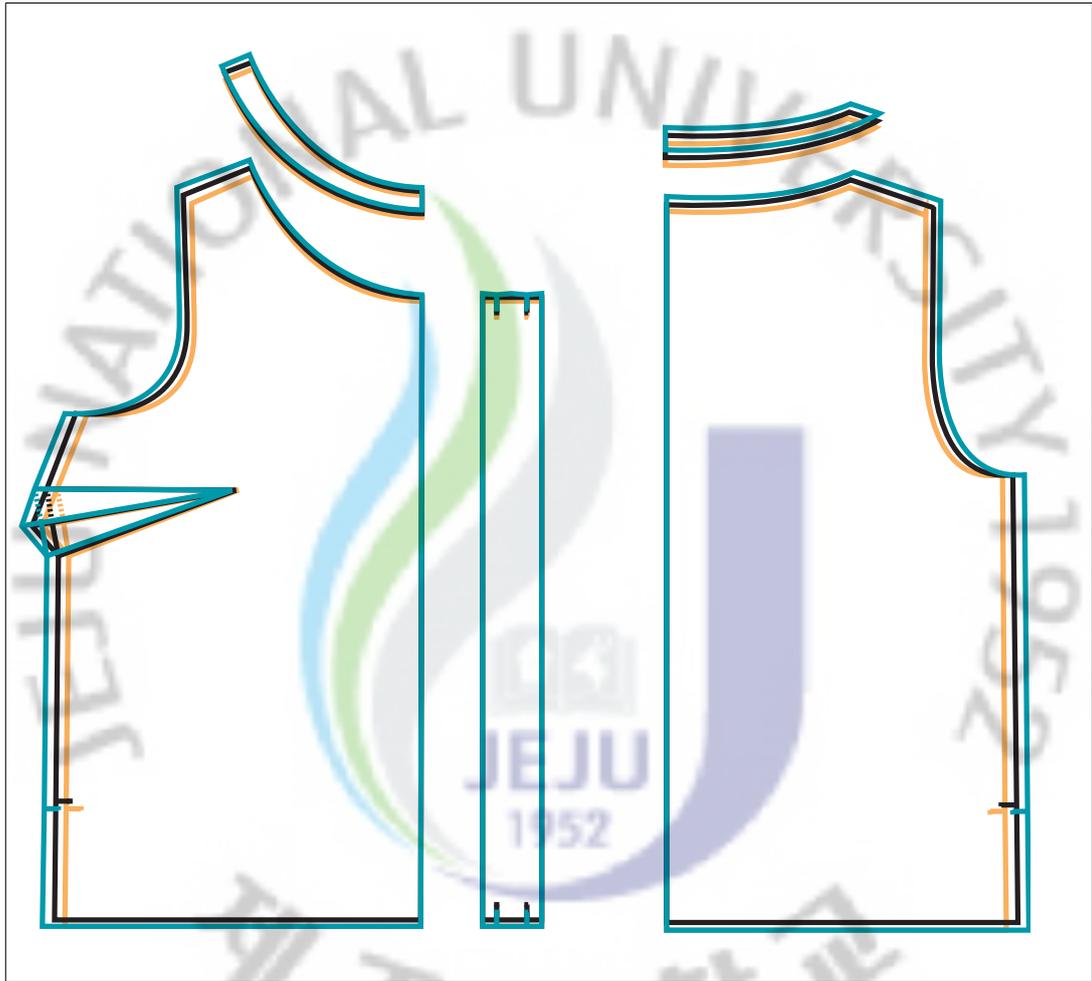
<그림 25> 블라우스 II 그레이딩 전개도

<그림 20>과 같은 방법으로 그레이딩 룰을 적용하여 블라우스 II를 그레이딩하여 패턴이 전개된 모습은 위 <그림 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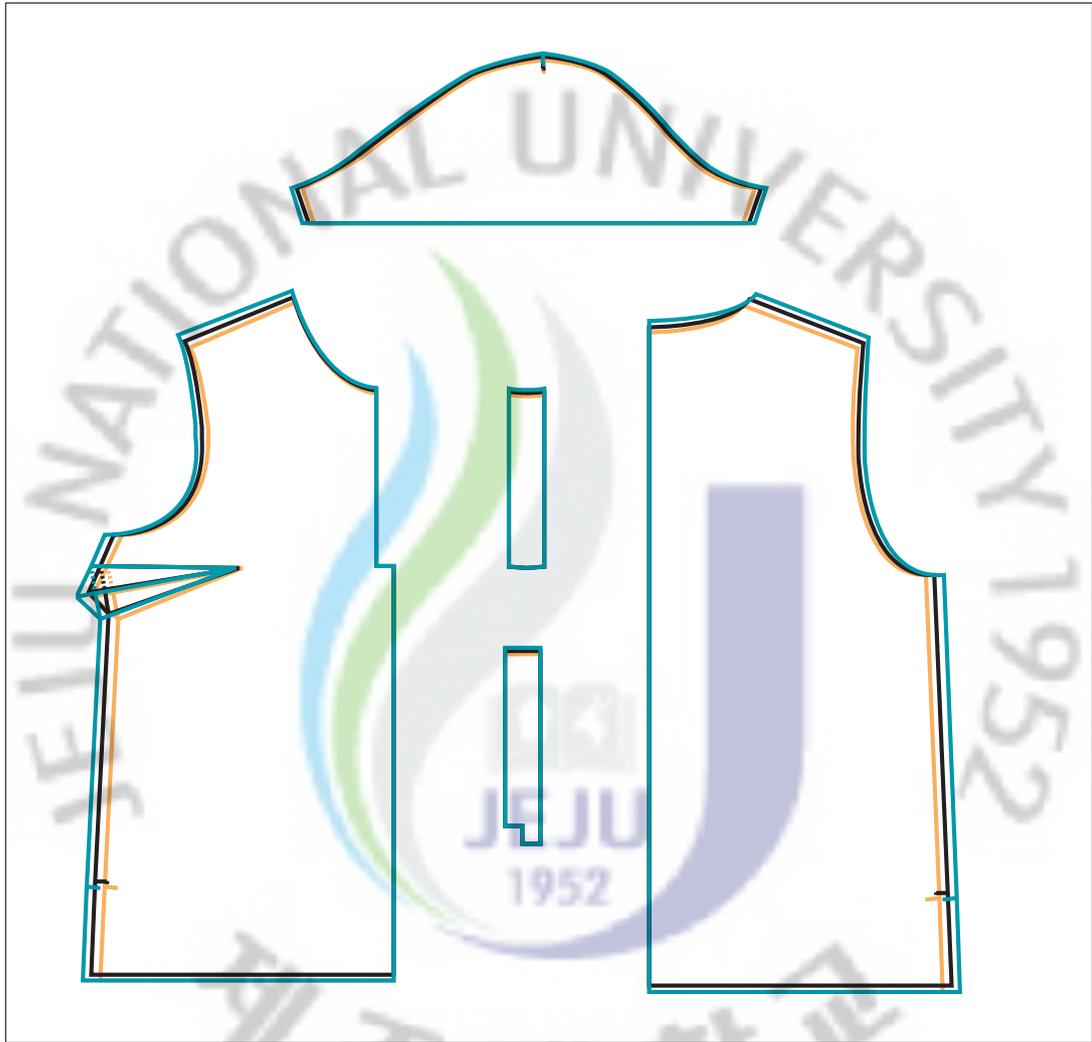
<그림 26> 블라우스 III 그레이딩 전개도

<그림 21>과 같은 방법으로 그레이딩 룰을 적용하여 블라우스 III을 그레이딩하여 패턴이 전개된 모습은 위 <그림 26>과 같다.



<그림 27> 블라우스 IV 그레이딩 전개도

<그림 22>와 같은 방법으로 그레이딩 룰을 적용하여 블라우스 IV를 그레이딩 하여 패턴이 전개된 모습은 위 <그림 27>과 같다.



<그림 28> 블라우스 V 그레이딩 전개도

<그림 23>과 같은 방법으로 그레이딩 룰을 적용하여 블라우스 V를 그레이딩하여 패턴이 전개된 모습은 위 <그림 28>과 같다.

V. 결론 및 제언

현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복에 있어 디자인 외적 요소로서 그 옷감 소재가 갖는 피부에 대한 웰빙을 추구하게 되었고, 의복의 피부환경에 대한 관심에 따라 천연염색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주도 전통 감물 염색에 의한 갈천으로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을 연구하였다.

갈천에는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균성, 방취성 등 피부환경에 긍정적인 특성이 있다. 그리고 갈천이 갖는 옷감 특성인 뽀뽀하며 부피감을 주고 구김성이 좋은 성질과 갈천의 촌스러운 듯한 갈색과 철매염에 의해 바랜듯한 색상이 빈티지 소재의 특성, 색상과 부합된다. 이러한 갈천의 피부환경에 긍정적인 특성과 빈티지 소재로서의 적합성을 부합하여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의 빈티지 패션을 구현하였다.

제주 문화상품으로 다른 의상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티셔츠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블라우스를 정하였고 5가지 블라우스 디자인을 제시하여 권숙희(2000)식 패턴으로 실험 제작하였으며 예비 실험을 통해 갈천과 철매염한 갈천으로 빈티지 스타일의 갈옷 블라우스를 완성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한 패턴 수정 내용은 목둘레 파임과 그에 따른 들뜸분 삭제, 민소매 블라우스에서 진동둘레의 적절함 파임을 위한 진동높이 올림, 반소매 블라우스의 진동둘레 파임, 여유 및 트임 길이 등이다.

갈천과 제작된 5가지 갈옷 블라우스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대 여성의 피부 질환 여부는 31.1%로 피부 질환 여부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상품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갈천의 피부 환경에 긍정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그 각각의 문항인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균성, 방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적은 것으로 나와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갈옷의 선호도에 가장 부정적인 이유로 갈천의 갈색 색상(57.8%)으로 나왔

다. 따라서 갈옷의 전통적인 색상인 갈색에서 벗어나 카키색 등 보다 더 다양한 색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3번의 결과에서처럼 갈색으로 제작된 블라우스 V, II의 선호도, 구매 정도 및 빈티지 부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20대를 위한 갈옷 개발을 위해서는 갈천의 색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5가지 갈옷 블라우스의 선호도는 III, I 블라우스에서 빈티지 스타일 부합 정도가 높을수록 선호도, 구매 정도가 높게 나타나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 개발을 위해서는 빈티지 스타일에 대한 적용이 적절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갈옷 블라우스의 제주 문화상품으로서의 활용을 위해 20대 체형에 맞게 수정 보완된 5가지 블라우스 패턴을 그레이딩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주 문화상품으로서 갈옷 개발을 위해서는 갈천의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균성, 방취성 등 피부 환경에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20대 여성을 위한 패턴 연구에 따른 맞춤재, 색상, 서로 다른 느낌의 질감의 배합 등을 고려한 빈티지 스타일의 갈옷을 제작한다면 제주 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20대 여성을 위한 갈옷 개발을 위해서는 갈천 특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20대 여성들의 선호 디자인 조사에 따른 보다 많은 패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갈천 원단과 철매염한 갈천 원단에 한정하여 실험하였으며 기본 블라우스 디자인에 한정하여 빈티지스런 표현을 위한 부분도 부족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부분은 업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본 연구를 기초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산학 연계를 통해서 갈옷의 빈티지 스타일에 부합되는 염색기법의 연구와 색상 개발, 다른 아이템으로의 갈옷 개발 및 패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참고문헌

- 갈옷 아름다움 세계에 알린다. (2003, 1. 10). *제주일보*. 자료검색일 2010, 8. 5, 자료출처 <http://www.jejunews.com>
- 감물위에 떡물...중후한 카키색 연출, (2001, 12. 17). *제민일보*. 자료검색일 2010, 8. 3, 자료출처 <http://jemin.com>
- 고은숙, 이혜선. (2003). 감즙염색이 직물의 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8), 883-891.
- 고현진. (2001). 빈티지(Vintage) 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2), 482-493.
- 권숙희, 홍선철. (2007). 제주문화상품 갈옷의 패턴 그레이딩 DB를 위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111-125.
- 김태능. (1982).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 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 (1991). 동아출판사. 16, p. 277
- 문봉옥 “갈중이”. (2000. 6). Dream of Jeju. p. 16-17.
- 문화예술과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2001). *제주여성문화*.
- 박덕자. (1998). *媒染劑와 紫外線을 處理한 織物의 감즙染色*.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자. (2001). 갈옷 - 그 특성과 전망-. 경춘사.
- 산업자원부 · 기술표준원. (2004).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보고서 (2차년도 최종 보고서).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2004). 의류제품 치수표준화 사업 최종보고서.
- 심화진, 이혜영. (2006). 우리나라 천연염료와 매염제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30-32.
- 양정희, 박혜원. (2010). 빈티지 패션의 색채 특성에 관한 연구 -2003~2008년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4(1), 86-105.
- 양진숙, 김기연. (2006). Madder 염색 시 천연매염제 사용에 따른 매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2(3), 78-85.

- 어린이 질환 ‘아토피’...성인으로 옮겨간다. (2006, 10. 26).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0, 8. 4, 자료출처 <http://chosum.com>
- 영한 대사전. (1991). 시사 영어사. p. 2595.
- 윤성희. (2004). ‘제주 갈옷’ 사진 제작 연구(‘몽생이’ 에디토리얼 패션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2003). 현대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양식과 의미 분석 : 2001년부터 2003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한. (2010). analysis of Anti-Alergic Activities by Extracts from Persimmon Sap-Stained Rayon and Cotton Fabrics. 생명과학회지, 20(5), 794-498.
- 임지완, 박민여. (2007). 국내 패션 트렌드에 반영된 빈티지(Vintage)에 관한 연구 -2001년 FW~2006 S/S까지-. 복식문화연구, 15(3), 405-419.
- 장롱숙 ‘엄마옷’ 거리를 누빈다. (2000, 7. 3). 동아일보 매거진 News +90. 자료검색일 2010, 8. 7,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 전은경, 권숙희. (2000). 패턴 제작의 원리. 서울: 교문사.
- 정윤주. (2007). 국내 온라인 빈티지 쇼핑몰 패션 디자인 분석 -여성복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주공예예술가 4명 ‘大韓名人’ 추대. (2006, 3. 29).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10, 8. 3, 자료출처 <http://media.daum.net>
- 제주도. (1996). 제주 100년.
- 제주도. (2001).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 제주도특별자치도 제주시. (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 옛모습.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제주문화상징.
- 제주미래 향한 또 하나의 도전. (2010, 4). 열린 제주시, p. 28-29.
- 조성식. (1993). 금성관 영한 대사전. 금성출판사. p. 3600.
- 조영아. (1999). 패턴 그레이딩. 서울: 교학연구사.
- 주영주. (2005). 천연염색에 사용되는 천연매염제에 관한 연구[III] -철장액과 밴반-. 복식, 55(6), 45-50.
- 진성기. (2003).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그 오묘한 빛과 향기-. 제주민속연구소.

- 채장희. (2009). *감즙 처리에 따른 감과 귤감의 품질 특성과 아토피 억제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숙. (2005). 감즙과 감즙염색 면직물의 항균성. *대한가정학회지*, 43(3), 119-129.
- 현용준. (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 현지현. (2005). *현대 패션의 빈곤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희숙. (2003).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 13-17.
- 황경혜. (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나 유희적 빈티지*.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81). G & C Merriam Company.
- <http://www.mongsengee.com>

부록. 블라우스 그레이딩 룰 값

블라우스 I

호칭 그레이딩		160-80		160-83		165-86	
		X	Y	X	Y	X	Y
번호	그레이딩점						
101	앞목점	0	-0.25	0	0	0	0.25
102	앞목옆점	0.13	-0.5	0	0	-0.13	0.5
103	앞어깨점	0.5	-0.5	0	0	-0.5	0.5
104	앞겨드랑이앞벽점	0.5	-0.25	0	0	-0.5	0.25
105	앞겨드랑이점	0.75	0	0	0	-0.75	0
106	앞가슴다트끝점	0.25	0	0	0	-0.25	0
107	앞가슴다트옆점	0.75	0	0	0	-0.75	0
108	앞허리옆점	0.75	-0.5	0	0	-0.75	-0.5
109	앞옷길이끝옆점	0.75	-0.5	0	0	-0.75	-1
110	앞옷길이끝중심점	0	-0.5	0	0	0	-1
111	앞여밈위점	0	-0.25	0	0	0	0.25
112	앞여밈아래점	0	-0.5	0	0	0	-1
201	뒤목점	0	-0.5	0	0	0	-0.5
202	뒤옷길이끝중심점	0	-0.5	0	0	0	-1
203	뒤옷길이끝옆점	-0.75	-0.5	0	0	0.75	-1
204	뒤허리옆점	-0.75	-0.5	0	0	0.75	-0.5
205	뒤겨드랑이점	-0.75	0	0	0	0.75	0
206	뒤겨드랑이뒤벽점	-0.5	-0.25	0	0	0.5	0.25
207	뒤어깨점	-0.5	-0.5	0	0	0.5	0.5
208	뒤어깨다트끝점	-0.13	-0.5	0	0	0.13	0.5
209	뒤목옆점	-0.13	-0.5	0	0	0.13	0.5
301	칼라목옆점	0.33	0	0	0	-0.33	0
302	칼라뒤목점	0.45	0	0	0	-0.45	0

블라우스 II

호칭 그레이딩		160-80		160-83		165-86	
		X	Y	X	Y	X	Y
번호	그레이딩점						
101	앞목점	0	-0.25	0	0	0	0.25
102	앞목옆점	0.13	-0.5	0	0	-0.13	0.5
103	앞어깨점	0.5	-0.5	0	0	-0.5	0.5
104	앞라인진동점1	0.5	-0.25	0	0	-0.5	0.25
105	앞라인중간점1	0.38	0	0	0	-0.38	0
106	앞라인허리점1	0.38	-0.5	0	0	-0.25	-0.5
107	앞라인끝점1	0.38	-0.5	0	0	-0.38	-1
108	앞옷길이끝중심점	0	-0.5	0	0	0	-1
111	앞라인진동점2	0.5	-0.25	0	0	-0.5	0.25
112	앞겨드랑이점	0.75	0	0	0	-0.75	0
113	앞허리옆점	0.75	-0.5	0	0	-0.75	-0.5
114	앞옷길이끝옆점	0.75	-0.5	0	0	-0.75	-1
115	앞라인끝점2	0.75	-0.5	0	0	-0.75	-1
116	앞라인허리점2	0.38	-0.5	0	0	-0.38	-0.5
117	앞라인중간점2	0.38	0	0	0	-0.38	0
121	앞여밈위점	0	-0.25	0	0	0	0.25
122	앞여밈끝점	0	-0.5	0	0	0	-1
201	뒤목점	0	-0.5	0	0	0	0.5
202	뒤허리중심점	0	-0.5	0	0	0	-0.5
203	뒤옷길이끝중심점	0	-0.5	0	0	0	-1
204	뒤라인끝점1	0.38	-0.5	0	0	-0.38	-1
205	뒤라인허리점1	0.38	-0.5	0	0	-0.38	-0.5
206	뒤라인중간점1	0.38	0	0	0	-0.38	0
207	뒤라인진동점1	-0.5	-0.25	0	0	0.5	0.25
208	뒤어깨점	-0.5	-0.5	0	0	0.5	0.5
209	뒤어깨다트끝점	-0.25	-0.5	0	0	0.25	0.5
210	뒤목옆점	-0.13	-0.5	0	0	0.13	0.5
211	뒤라인진동점2	-0.5	-0.25	0	0	0.5	0.25
212	뒤라인중간점2	-0.38	0	0	0	0.38	0
213	뒤라인허리점2	-0.38	-0.5	0	0	0.38	-0.5
214	뒤라인끝점2	-0.38	-0.5	0	0	0.38	-1
215	뒤라인끝옆점	-0.75	-0.5	0	0	0.75	-1
216	뒤허리옆점	-0.75	-0.5	0	0	0.75	-0.5
217	뒤겨드랑이점	-0.75	0	0	0	0.75	0

블라우스 III

호칭 그레이딩		160-80		160-83		165-86	
		X	Y	X	Y	X	Y
번호	그레이딩점						
101	앞목점	0	-0.25	0	0	0	0.25
102	앞목옆점	0.13	-0.5	0	0	-0.13	0.5
103	앞어깨점	0.5	-0.5	0	0	-0.5	0.5
104	앞겨드랑이앞벽점	0.5	-0.25	0	0	-0.5	0.25
105	앞진동다트끝점	0.25	0	0	0	-0.25	0
106	앞겨드랑이점	0.75	0	0	0	-0.75	0
107	앞옷길이끝옆점	0.75	-0.5	0	0	-0.75	-2
108	앞옷길이끝중심점	0	-0.5	0	0	0	-2
201	뒤목점	0	-0.5	0	0	0	-0.5
202	뒤옷길이끝중심점	0	-0.5	0	0	0	-2
203	뒤옷길이끝옆점	-0.75	-0.5	0	0	0.75	-2
204	뒤겨드랑이점	0	-0.5	0	0	0	-0.5
205	뒤겨드랑이뒤벽점	-0.5	-0.25	0	0	0.5	0.25
206	뒤어깨점	-0.75	-0.5	0	0	0.75	0.5
207	뒤목옆점	-0.13	-0.5	0	0	0.13	0.5
208	뒤어깨다트끝점	-0.25	-0.5	0	0	0.25	0.5

블라우스 IV

호칭 그레이딩		160-80		160-83		165-86	
		X	Y	X	Y	X	Y
번호	그레이딩점						
101	앞목점	0	-0.25	0	0	0	0.25
102	앞목옆점	0.13	-0.5	0	0	-0.13	0.5
103	앞겨드랑이점	0.5	-0.5	0	0	-0.5	0.5
104	앞겨드랑이앞벽점	0.50	-0.25	0	0	-0.25	-0.5
105	앞겨드랑이점	0.75	0	0	0	-0.75	0
106	앞가슴다트끝점	0.25	0	0	0	-0.25	0
107	앞가슴다트옆점	0.75	0	0	0	-0.75	0
108	앞옷길이끝옆점	0.75	-0.5	0	0	-0.75	-1
109	앞옷길이끝중심점	0	-0.5	0	0	0	-1
111	안단앞목점	0	-0.25	0	0	0	0.25
112	안단앞목옆점	0.13	-0.5	0	0	-0.13	0.5
121	앞여밈위점	0	-0.25	0	0	0	0.25
122	앞여밈아래점	0	-0.5	0	0	0	-1
201	뒤목점	0	-0.5	0	0	0	-0.5
202	뒤옷길이끝중심점	0	-0.5	0	0	0	-1
203	뒤옷길이끝옆점	-0.75	-0.5	0	0	0.75	0.5
204	뒤겨드랑이점	0	-0.5	0	0	0	-0.5
205	뒤겨드랑이뒤벽점	0	-0.5	0	0	0	-1
206	뒤어깨점	-0.75	-0.5	0	0	0.75	0.5
207	뒤목옆점	-0.13	-0.5	0	0	0.13	0.5
211	안단뒤목점	0	-0.5	0	0	0	0.5
212	안단뒤목옆점	-0.13	-0.5	0	0	0.13	0.5

블라우스 V

호칭 그레이딩		160-80		160-83		165-86	
		X	Y	X	Y	X	Y
번호	그레이딩점						
101	앞목점	0	-0.25	0	0	0	0.25
102	앞목옆점	0.13	-0.5	0	0	-0.13	0.5
103	앞어깨점	0.5	-0.5	0	0	-0.5	0.5
104	앞겨드랑이앞벽점	0.5	-0.25	0	0	-0.5	0.25
105	앞겨드랑이점	0.75	0	0	0	-0.75	0
106	앞가슴다트끝점	0.25	0	0	0	-0.25	0
107	앞가슴다트옆점	0.75	0	0	0	-0.75	0
108	앞옷길이끝옆점	0.75	-0.5	0	0	-0.75	-1
109	앞옷길이끝중심점	0	-0.5	0	0	0	-1
111	안단앞목점	0	-0.25	0	0	0	0.25
112	안단앞목옆점	0.13	-0.5	0	0	-0.13	0.5
121	앞여밈위점	0	-0.25	0	0	0	0.25
122	앞여밈아래점	0	-0.5	0	0	0	-1
201	뒤목점	0	-0.5	0	0	0	-0.5
202	뒤옷길이끝중심점	0	-0.5	0	0	0	-1
203	뒤옷길이끝옆점	-0.75	-0.5	0	0	0.75	0.5
204	뒤겨드랑이점	-0.75	0	0	0	0.75	0
205	뒤겨드랑이뒤벽점	-0.5	-0.25	0	0	0.5	0.25
206	뒤어깨점	-0.75	-0.5	0	0	0.75	0.5
207	뒤목옆점	-0.13	-0.5	0	0	0.13	0.5
211	안단뒤목점	0	-0.5	0	0	0	0.5
212	안단뒤목옆점	-0.13	-0.5	0	0	0.13	0.5

Abstrat

A STUDY ON GAROT BLOUSE WHICH IS A CULTURAL PRODUCT OF JEJU FOR WOMEN IN THEIR TWENTIES

Ko, Ju-Hyung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Gwon, sukhui

Recently people have pursued the well-being of skin through dermatotropic material of clothes, besides design of clothes. Accordingly, natural dyeing is being magnified. In this study, we have studied garot for women in their twenties with gal cloth dyed with gal water.

Gal cloth has positive attributes to skin environment, such as anti-allergic, anti-atopic, antibiotic, anti-fume properties, etc. And stiff, volumizing, well-folded properties which gal cloth has as fabric and the rustic brown color of gal cloth and fading color by cheolmaeyeom correspond well with characteristic and color of vintage material. With these positive characteristics to skin environment and suitability as vintage material of gal cloth, we materialized vintage fashion of garot for women in their 20s.

We selected blouse as Jeju cultural product considering harmony with other clothes and as an item which we can wear comfortably like T-shirt. And we experimentally made these blouses in a pattern of Gwon Sukhui style (the year 2000) by suggesting five kinds of designs. And we completed garot blouses of vintage style with gal cloth and gal cloth

processed with cheolmaeyeom through pilot experiment.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survey of gal cloth and five kinds of garot blouses made by us.

1. The percentage of women in their 20s who have skin diseases is 31.3% and it's high, so it'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duct development for these women.

2. People know the positive properties of gal cloth to skin environment well but don't know much about each of the questions, so it is necessary to promote about this.

3. The most negative respect on preference for garot was color brown of gal cloth(58.8%).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more various colors(for example, khaki), free from traditional color brown.

4. Like the result of number 3, preference, purchase, suitability as vintage clothes of blouse V, II is relatively low. So we have to consider color of gal cloth to develop garot for women in their 20s.

5. Preference for five kinds of garot blouses was high as suitability as vintage style was high in blouse III, I. So It is appropriate to apply vintage style for developing garot for women in their 20s.

And we graded five kinds of blouse pattern corrected and supplemented to fit body shape of women in their 20s.

As mentioned above, when we manufacture vintage style garot with aggressive promotion of positive properties to skin environment of gal cloth, such as antiallergic, antiatopic, antibiotic, anti-fume properties, etc and considering fit, color, mixture of textures of different feelings according to pattern research for women in their 20s, garot is quite probable to be cultural product of Jeju.

감사의 글

대학원 생활을 시작할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나에 대한 많은 부족함을 알게되어 앞으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저에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던 권숙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데도 제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지도해주셨던 이서희 교수님,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은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논문을 쓰는 동안 도움을 주셨던 여러 교수님, 대학원 선배님들, 후배님들 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12월

고주형 드림